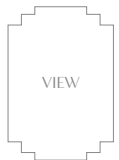




THEME STORY

아트뷰의 시각으로 동시대의 문화예술을 밀도 있게 다룹니다. 보다 깊고 보다 넓게 확장된 세계관으로 진입하는 문을 지금, 열어보세요.



VIEW

작가의 프레임 속 예술 세계가 펼쳐집니다. 때로는 무대 위 재해석된 움직임으로, 때로는 새하얀 캔버스 위에 구축된 가상의 공간으로 변주합니다. 낮은 감각으로 공간을 유희합니다.



ART CURATOR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창조적 여정은 우리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흥미로운 순간들을 마주하도록 이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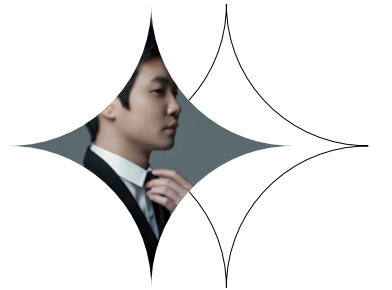


BEYOND SEONGNAM

지역예술의 새로운 정통성을 구축하고, 성남 그 너머의 본질적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기술과 과학, 과거와 현재, 예술가와 예술가 사이 경계의 미학을 발견합니다.

2022 MATINÉE CONCERT

새로운 마티네 콘서트



미리보기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도시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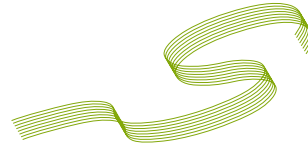


성남아트rium
모두의 꿈이 꽃피는 '예술의 정원'



내 손 안에, 우리 곁에

성남문화재단이 함께 합니다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주)인피콘 대표이사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안봉혁/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솔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이재한/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철쭉회원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우문식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김태호/김경자 남궁원/김순미 남선우/정정섭 마희자/조득환

박미경/강대식

백중훈/지용애

손의명/손외자 故송 자/탁순희

신동화

신상진

오종영/이승희

윤영상/박인영

이경화/이정우 故이성무/김복기

이은하/정인희

이임수/이화자 이정식/고옥주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고모아트옥션 이사

탄천회원
박 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전 (주)씨너스 회장
최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원/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수 한국수도경연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안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에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북극성제일치과원장.

김영수/원종순 전 성남시지과의사협회장
김중현/정승희 전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진환/이화용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김태호/김경자 전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전 총재
마희자/조득환 사진공방 대표

박미경/강대식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중원구 보건소 약사
(주)평화기업 이사

백중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텐츠(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외자 손의명치과 원장 / 한국화가
故송 자/탁순희 전 (주)대교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주)유엔젤 제작감독

신상진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오종영/이승희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윤영상/박인영 前 국사편찬위원장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故이종덕/김영주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현주/김윤선 메리츠화재 부장 /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솔루션 부사장 / 집코리아 CTO
장형환/김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갤러리 관장

정성조/심윤경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승설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악구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전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주)ING생명보험 명예전무
조남주/이규철 미술단체 <線과色> 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故허 참/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박영일 ㈜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정림 림에이엠시 대표
윤향남 화가
주재근 정효국악문화재단 대표
최은희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까지회원
장미영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 부사장
전동욱

명예회원
신선희 무대미술가.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박지향 부회장 강효주 황광석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020 이메일 mecenat@snart.or.kr

가입 기준	회원 구분	평생회비
법인(단체 포함)	은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1,000만 원 이상
	철쭉	500만 원 이상
개인	이매	(5년)300만 원 이상
	까지	(2년)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부부회원

2022 SEONGNAM ATRIUM

성남아트리움 개관기념 음악회

2022. 3. 4.^{FRI} ~ 4. 16.^{SAT}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3. 4. Fri 4:00PM

성남시립교향악단 / 지휘 금난새
피아노협연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전석 10,000원

3. 17. Thu 7:30PM

성남시립국악단
지휘 진성수
전석 5,000원

3. 29. Tue 7:30PM

성남시립합창단
지휘 손동현
전석 5,000원

4. 16. Sat 4:00PM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박위수
전석 5,000원

조진주 & 앙상블 아파시오나토

ARTIST
INSIGHT
chiree

2022년 2월 25일(금) 오후 19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www.snart.or.kr

DONG HYEK LIM

PIANO RECITAL

프로그램

슈베르트(F.Schubert)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D.959

Piano Sonata No. 20 in A major, D.959

피아노 소나타 21번 B플랫장조 D.960

Piano Sonata No.21 B Flat Major D.960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티켓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입장연령 8세이상
문의 031.783.8000 |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2022.3.19.SAT.5PM

THEME STORY



- 08 **아티스트 토크**
음악이 진심을 전한다면
마티네 콘서트 진행자, 피아니스트 김태형
- 14 **인터뷰**
내일이 더 빛날 젊음으로
첼리스트 한재민
- 18 **미리보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끝나지 않는 음악
2022 마티네 콘서트 '영국으로부터'

VIEW



- 24 **미리보기 1**
슈베르트의 마지막 노래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 26 **미리보기 2**
예술가의 삶이 작품이 되는 순간
아티스트 인사이트 시리즈 I
- 28 **미리보기 3**
어제의 이야기로 오늘을 비추다
연극만원 <그때도 오늘>



- 30 **미리보기 4**
벽 대신 시간을 사이에 둔 공간
2022 딜라이트 성남

ART CURATOR



- 36 **기후변화와 예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움직임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 38 **기술과 예술**
내 건 유일해, 그리고 특별해
NFT가 선사하는 인생의 보물
- 40 **미술 길라잡이**
미술 감상이 어려운 당신에게
미술 작품의 특성과 미술 시장 이해하기
- 42 **일상에서의 디자인**
조의(弔衣)
반려 재킷을 떠나보내며
- 44 **영화속 클래식**
삶은 여행, 과정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트립 투 이탈리아>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46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뉴욕: 도시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다
장소성과 역사를 아우르는 재생건축의 힘

BEYOND SEONGNAM



- 56 **문화공간**
모두의 꿈이 꽃피는 '예술의 정원'
성남아트리움
- 60 **예술가의 작업실**
진실하고 온전한 추상
피정원 작가
- 66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 69 **캘린더**



**2022
MATINÉE
CONCERT**

Pianist
Tae-Hyung Kim
Cellist
Jae Min Han

© shutterstock

● 2022 MATINÉE ●
CONCERT ●

새로운 마티네 콘서트

- 08 **아티스트 토크**
음악이 진심을 전한다면
마티네 콘서트 진행자, 피아니스트 김태형
- 14 **인터뷰**
내일이 더 빛날 젊음으로
첼리스트 한재민
- 18 **미리보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끝나지 않는 음악
2022 마티네 콘서트 '영국으로부터'

PIANIST TAE-HYUNG KIM



음악이 진심을 전한다면

마티네 콘서트 진행자, 피아니스트 김태형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서 진행자, 또는 해설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작품에 대한 해설, 연주자와의 진솔한 대화, 청중과의 교감, 이 모든 것이 진행자의 몫이다. 음악에 대한 깊이와 애정, 매달 객석을 찾는 관객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쉽지 않은, 진심이 필요한 자리다.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를 새롭게 이끌어갈 7년 만의 주인공은 ‘그래서’ 피아니스트 김태형이다. 진솔하고 담백한 울림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쌓아온, 모두에게 진심을 전하는 피아니스트. 그가 관객에게 전할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마티네 콘서트, 새로운 시작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의 새로운 진행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결정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연주자도, 진행자도 방식은 다르지만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자 경험은 없지만, 예전에 신윤주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KBS 1FM <KBS 음악실> ‘살롱 드 피아노’ 코너에서 연주와 해설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작품을 골라 직접 구성해 들려드리는 일종의 렉처 콘서트 코너였는데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할수록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당시 청취자들도 “말주변은 없지만 조곤조곤 설명하는 스타일이 귀에 잘 들어온다”(웃음)고 격려해주셔서, 마티네 콘서트 역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 진행자였던 김석훈 씨가 워낙 잘해주셨던 공연이고 진행자는 ‘말’로써 교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기대가 커요.



‘살롱 드 피아노’ 방송 후에 “설명을 정말 잘해주신다” “목소리 가 좋다”는 반응이 참 많아서 마티네 콘서트 진행이 더욱 기대됩니다. 제가 듣기에도 차분하게 핵심을 잘 표현해주신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진행자 데뷔를 앞두고 참고하거나 따로 연습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지요?

김석훈 씨가 진행하셨던 지난 마티네 콘서트 영상들을 짬짬이 보고 있어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던 부분들, 가령 진행자가 흐름을 전환하는 모습 같은 여러 요소에 눈길이 가더군요. 신윤주 아나운서의 방송들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마티네 콘서트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는 이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래전 마티네 형식 음악회가 처음 등장할 당시엔 오전 시간이 자유로운 분들과 주부 등을 타깃으로 프로그래밍했다면, 이후 점점 자리가 잡혀서 이제는 함께 공부해가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느 공연 기획자의 얘기로는, 관객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공연장을 찾으신다고 해요. 기본 정보들은 휴대전화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요즘, 좀 더 다른 무언가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픈 마음으로 직접 연주회를 찾는 거죠. 그런 진화의 모습이 녹아든 형태가 바로 마티네 콘서트가 아닌가 합니다. 저도 음악을 전공한 피아니스트지만 여전히 모르는 곡이 많거든요. 저 역시 관객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올해 마티네 콘서트의 주제는 ‘영국으로부터’죠. 진행자, 또 관객의 입장에서 올해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연주회를 많이 다니지는 못해서, 올해 마티네 콘서트를 다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솔리스트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어요. 평소 헨리 퍼셀과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이번 마티네 콘서트에서 영국의 바로크 음악부터 월튼을 비롯한 20세기 작곡가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 관심은 있었지만 찾지 못했던 곡들을 들을 수 있어 기대가 커요. 3월에는 제가 좋아하는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만날 수 있기도 하네요.

진행자뿐 아니라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모습도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10월의 마티네에서 ‘현단의 바흐’로 불렸

던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협주곡을 연주하시죠. 무대에서 처음 연주하시는 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프시코드가 아닌 모던 피아노로 연주하시는 만큼 접근법이나 해석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낭만 시대 이후의 긴 협주곡에 비하면 길지 않은, 짧지만 예쁜 곡인데요. 아마 3악장의 선율은 굉장히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작품이 작곡된 시대와는 하프시코드와 모던 피아노라는 악기의 차이, 페달의 유무, 또 연주 공간의 규모 차이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모던 피아노의 다양한 색채감을 살려 표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예를 들어 ‘파란색’ 하나로도 푸른색, 에메랄드색, 청록색, 진한 파랑처럼 무수히 많은 색채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파랑을 빨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파랑이 가진 색채의 팔레트를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MATINÉE CONCERT

팬데믹과 예술

팬데믹의 여파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지난해 성남아트센터 <아티스트 인사이트> 시리즈에서 김두민 씨와 좋은 무대를 보여주셨고, 그 밖에도 독주와 듀오, 협연 등 다양한 무대로 바쁜 한 해를 보내셨어요. 그간의 근황은 어떠셨나요? 잠깐의 멈춤은 있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꾸준히 연주회가 열린 덕분에 다양한 작품을 연주하고 배울 수 있었던 한 해였어요. 국내 여러 페스티벌에 참여했고 성남아트센터에서도 오랜만에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었죠. 지난해 7월 중순에는 정말 운 좋게도 유럽에 한 달 정도 연주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딱 그때가 유럽 내 확진자도 감소하고 상황이 안정적이던 시기였거든요. 덕분에 스위스 무지크 도르프 에르넨 페스티벌 독주회, 독일 연주를 마칠 수 있었어요.

유관중 공연도 재개되고 공연 자체의 전면 취소는 줄어들면서 팬데믹 첫해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편이지만, 어쨌든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와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식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셨는지, 또 그 속에서 찾으신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부분도 혹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엔 막막했죠. 공연이란 결국 관객과 만나야만 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예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몇 달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여름엔 운 좋게 유럽을 다녀오긴 했지만 이후의 해외 일정들은 격리나 코로나 상황으로 계획과 다르게 주춤해진 것들이 많았고, 당연히 아쉬움이 컸죠. 그래도 그 속에서 온라인 콘서트처럼 새로운 방식을 접하면서 저마다 장점과 보완점에 대한 연구도 해나갔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서울에서 열리는 연주회를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해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볼 수 있다는 것, 내 집에서 다른 나라, 다른 공연장의 공연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온라인 콘서트의 장점이었죠. 또 해외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의 내한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국내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것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무대,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연주자들에게는 예술의 존재 의미와 관객과의 소통, 전달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콘서트의 완성도가 높다 하더라도 현장의 호흡과 상호 교감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가기 위해 연주자로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연주자들의 무대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저희의 연주로 위안을 느끼시는 관객분들, 음악에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 역시 컸어요. 그분들이 이런 시대에 직면하며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감,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음악으로 어떻게 위로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죠. 어떤 방식, 어느 플랫폼이든 함께 공감하며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역할, 그저 즐거움만이 아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교육과 연주

2018년 가을부터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당시 결정까지 신중한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스스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모든 일엔 왕도가 없다는 것을 느껴요. 가르친다는 것도 결국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 학생들의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어느덧 3년이 지났는데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발견할 때 기쁨이 커요. 그것들을 학생 스스로 어떻게 이끌어내게끔 도와야 하는지, 그 역할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하시는 ‘좋은 스승’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르치며 전달하고 싶으신지요.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악을 연주할 때 진심으로 설레고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 진실된 마음이 음색과 음악에 담기고, 청중에게 말을 걸고 교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일깨워줄 수 있기를 바라죠.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 과거에 성장을 이끌어주셨던 스승들, 강충모 선생님이나 엘리스 비르살라제와 같은 분들의 티칭 스타일을 떠올려보면 제자로서 어떤 부분들이 인상 깊게 다가오셨는지요?

공통적으로 감사히 배운 것은 결국 “좋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르살라제 선생님은 누가 봐도 뛰어난 재능의 학생일지라도, 어떤 인성이나 됨됨이가 선생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자로 받지 않으셨어요. 당시에는 의아했는데, 연주자의 인성이 결국 음악에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강충모 선생님께도 연주에 앞서 인성과 인품이 중요하다는 점을 음악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니다.

예전 인터뷰에서 “교육과 연주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던 것이 우리 세대에서는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둘을 병행하는 과정에 큰 무리 없이 적응하신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리고 ‘달라졌다’고 하신 부분이 전반적인 사회 흐름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젊은 세대 연주자들의 에너지나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유학을 마친 뒤 연주자의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거나 아니면 바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쪽을 선택하시는 일종의 형태랄까,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국제 콩쿠르 입상자들이 모두 학생이었죠. 재능 넘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관심을 받으면서 연주 기회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젊은 연주자층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같아요. 이들이 10년, 20년이 지나 유학을 하고 저마다의 커리어를 이뤄가면서 교육자로서의 모습 또한 자연스럽게 갖춰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아보면 강충모 선생님도 교직에 몸담고서 바흐 사이클을 비롯해 연주를 멈추지 않으셨고, 비르살라제 선생님도 2개국 이상의 학교를 오가며 학생을 가르치는 삶 속에서 연주를 계속하셨어요. 제겐 그 모습을 곁에서 바라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의 순간에는 교육에 집중하고, 바로 또 연주하러 가서는 연주자로서 몰두하는 것. 당시엔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했지만 되더라고요. 결국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이 다 피부로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교육과 연주를 병행하며 생긴 장점도 있을까요?

티칭을 시작하면서 배운 부분이 많아요. 청중 입장에서 학생의 연주를 들으며 깨닫는 거죠. 이렇게 연주하면 관객과 좀 더 교감할 수 있겠다, 혹은 이 연주가 이렇게 부각된다면 더 좋겠다 하는

부분들처럼요. 물론 둘 사이의 시간 배분은 아직도 숙제입니다. 그래도 티칭을 마치고 연주로 돌아올 때 배운 것이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연주가 이전보다 조금은 편안해지고 교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지요.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태형

독일 뮌헨 음대,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어요. “뮌헨에서 독일스러운 삶을 살았고, 비르살라제의 영향으로 러시아적 음악 테크닉을 배웠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러시아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느낌일까요?

바닷물을 뜨면 처음에는 뿌영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침전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듯이, 돌아보면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렷하게 정리된 기간이 러시아 유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 대한 제 느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날씨는 정말 좋지 않고, 잔뜩 쌓인 눈은 어딘가는 얼어붙고 어딘가는 질퍽거리고, 옷은 젖고, 지저분하게 눈이 녹은 거리를 긴 강화를 신고 걸어야 하는, 저기압에 너무나 추운... 그랬던 어느 날에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옛 소비에트연방의 전통 춤을 선보이는 무대였는데, 정말 너무 즐겁게 관람하고 공연장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벽차고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음울했던 건물과 회색 하늘도 이전과는 달라 보이고 뭔가 잘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벅찬 기분, 위안과 에너지를 얻은 느낌이 가득했어요. 전쟁 속에서도 음악회를 쉬지 않고 열면서 음악에서 헤쳐 나갈 힘을 얻었던 러시아인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더군요. 특히 러시아 예술가들은 정말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예술을 해요. 예술에 대한 어떤 절박한 사명감과 프라이드, 절실함이 가득하죠. 그게 유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음악을 공유하자’는 느낌이라면, 러시아는 ‘내가 이걸 꼭 반드시 해내야 해’라는 맹목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내 것, 내 음악이 생기고 그것을 고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결국 무대에 선다는 건 강하고 단단해져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돌아보면 러시아 유학을 마치고 다시 뮌헨에 돌아가



실내악을 공부할 때, 러시아에서 쌓인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더해지면서 저 역시 음악적 내실이 생기지 않았나 해요.

2021년의 활동을 돌아보면 다양한 작곡가, 다양한 색깔의 작품을 들려주셨어요. 연주하면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작곡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지난해에는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채롭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많이 접한 작곡가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깊어진 부분이 느껴지더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슈베르트를 많이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전보다 즐기는 저를 발견해요. 그리고 새롭게 다가온 작곡가는 드뷔시입니다. 여전히 베토벤은 단 한곡을 연주해도 너무 어렵지만, 베토벤의 다른 기악 소나타를 연주하고 나니 피아노 소나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느낌입니다.

연주자로서의 일상 외에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원래 이것저것 소소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교수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다 보니 머릿속에 저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

고요. 이 공간은 산책을 할 때 생기기도 하고, 다른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미술관에 갈 때, 책을 읽을 때 드러나기도 해요. 어쨌든 학기가 끝나야 그나마 취미 생활을 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올해 특별한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협업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레퍼토리도 배울 예정이고, 여름에는 유럽에서 열리는 7월 독일 리사이틀을 비롯해 제가 활동하는 트리오 가온 공연, 여러 페스티벌 무대 역시 기대하고 있어요. 지휘자 크리스토프 포펜 선생님의 포르투갈 마르바오 페스티벌에서는 브람스 실내악을 시대순으로 들려드리는 무대에 쿼텟으로 참여합니다.

무엇보다 마티네 콘서트의 진행자로 관객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올 한 해 준비된 다양한 작품들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알아나가고 공부하며 진행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사진 최재우

내일이 더 빛날 젊음으로

첼리스트 한재민

MATINÉE CONCERT CELLIST JAE MIN HAN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클래식계의 차세대 스타 한 명을 꼽으라면 첼리스트 한재민을 빼놓을 수 없다. 만 15세였던 지난해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대회 사상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몇 달 뒤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첼로 부문 최연소 수상자이자 50년 만의 한국인 수상자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주인공이다. 국내파 영재를 넘어 한 사람의 성숙한 예술가로 차근차근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재민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한재민은 음악가였던 부모의 영향으로 일찍이 다양한 악기를 접하며 자라났다. 다만 플루트를 전공한 부모와는 달리 어린 한재민의 최종 선택은 첼로였다. 만 5세에 첼로를 시작하고 8세에 원주시립교향악단과 최연소 협연자로 데뷔 무대를 가질 정도로 빠른 성장이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연주하시던 플루트 대신 첼로를 선택한 이유요? 어렸을 때에는 플루트의 그 높은 소리가 시끄럽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은 아름다운 소리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다가 우연히 접한 첼로의 중후한 소리에 매료되었죠. 어린 시절 첼로를 배울 때 생각나는 기억 하나는, 피아노 학원에 다녀본 분들이라면 ‘한 번 하고 사과 하나 색칠하기’ 기억하시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첫 선생님이셨던 김민지 교수님께서 ‘매일 에튀드 번호마다 50번씩 하기’라는 숙제를 주셨는데, 밤늦게까지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아서 한번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나요(웃음).”

어린 한재민의 성장은 눈부셨다.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이후 일본 오사카 국제 음악 콩쿠르, 헝가리 다비드 포퍼 국제 콩쿠르에서 잇따라 1위에 올랐다. 기세는 멈추지 않았다. 2019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dotzauer 국제 콩쿠르에서도 1위와 특별상인 현대음악 작곡가 상을 휩쓸며 보기 드문 첼로 신동의 탄생을 알렸다. 그리고 2021년, 루마니아에서 열린 에네스쿠 콩쿠르에서 대회 전 부문 사상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다. 2006년생, 이제 겨우 만 15세의 나이. “성인 대상 콩쿠르는 처음이라 경험을 쌓기 위해 도전했다”는 덩덤한 이야기가 무색한 반전의 결과였다. 2위 수상자가 96년생, 3위가 94년생이었다는 점을 살펴보면 한재민의 성취가 얼마나 빠른 것인지 짐작이 간다. 그리고 몇 달 뒤, 낭보는 이어졌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3위 입상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역시나 최연소 입상이자, 한국인 첼리스트로는 스승인 정명화의 1971년 우승 이후 50년 만의 쾌거였다. 실로 무서운 10대, 차세대 스타의 탄생이었다.

물론 이 모든 결과가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콩쿠르 무대를 즐겼다는 낙천적인 모습 이면에는 과정에서의 무게가 분명 존재한다. 한재민의 SNS에는 당시 그가 음악가로서 온전히

“그냥 스스로 무대를, 음악을 즐길 수 있다면 그걸로 음악을 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 shinjoongkim

NEXT GENERATION

혼자 견뎌야만 했을 콩쿠르 준비 과정의 무게가 드러난다.

“...2020년 9월 에네스쿠 콩쿠르 세미 파이널리스트가 발표된 후부터 21년 10월 제네바 콩쿠르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콩쿠르에 대한 생각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그래서일까, 한재민은 2021년을 “매일 콩쿠르를 생각하면서 정말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던 시간”으로 기억한다.

“지쳐서 멈출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의 원동력이 되어준 것은 결국 음악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음악으로 위로받고, 음악으로 힘을 받으며 보냈던 한 해였습니다.”

즐길 수 있다면 충분하다

한재민은 2020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최연소 예술 영재로 발탁, 현재 예술사(학사) 과정에서 이강호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소년등과少年彗星의 부담은 없을까? 콩쿠르 우승 이후 더해지는 ‘영재’ ‘최연소’ ‘신동’ 같은 수식에는 “딱히 부담되지는 않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로 묵묵히 자신의 음악에 몰두하는 차분함이 엿보인다. 특별히 연습 분량이나 루틴을 정해두기 보다는 평균적으로 5~6시간 정도 진행하는 편. 어린 시절의 스승이었던 첼리스트 김민지와 정명화, 현재 한예종에서 배우는 이강호 교수의 가르침들은 자신의 음악적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회상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명화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러 간 날이었어요. 선생님과 아이디어를 나누다가 “유튜브에서 어떤 연주자가 이렇게 연주하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언해주시더군요. “요즘 미디어가 발달해서 좋은 점도 많지만 연주자 자신만의 아이디어나 개성이 사라지는 것 같다. 꼭 너의 음악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음악적 가치관이 통째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강호 선생님께서는 저의 음악을 정말 존중해주시면서 음악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는데 항상 도움을 주십니다.”

한재민은 3월 17일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에서 엘가의 첼로 협주곡으로 관객을 만난다. 지난해 제네바 콩쿠르 결선에서도 연주했던 레퍼토리다.

“곡을 해석할 때에는 일단 어떤 부분을 클라이맥스로 두고 어떤

부분에서 감정적인 긴장감을 만들어 어떤 부분에서 절제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감정적인 조화를 만들어낼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엘가 협주곡은 기본적으로 곡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좋아하는 첼리스트가 바뀐다는 한재민에게 ‘이번 주의 연주자’는 피에르 푸르니에다. “뭔가 영국 신사같이 나비넥타이 하나 매야 할 것 같은 음악이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라는 감상이 돌아온다. 비슷한 맥락으로,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관심 역시 언제나 다양한 호기심으로 활짝 귀를 열어두는 편이다.

“요즘 풀랑크, 드뷔시 같은 프랑스 작곡가들에게 푹 빠졌어요. 말러도 좋아해요. 최근에 첼로 작품은 자주 듣지 않았는데 어젯밤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들으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좋아하는 첼로 작품은 슈트라우스 첼로 소나타로 하겠습니다.”

여유 시간이 생길 때면 축구와 요리, 영화 감상을 즐긴다. MBTI는 ENTP. 원래 ENFP였는데 최근에 다시 해보니 ENTP가 나왔다며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MZ세대답게 특특 튀는 트렌디한 음악을 좋아하리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클래식 이외의 음악은 유재하, 이문세, 김광석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뜻밖의 대답이 돌아온다. 음악은 애플뮤직으로 주로 듣고, SNS는 직접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기보다 눈으로 즐기는 관찰자 역할에 익숙하다고.

앞으로 도전하고픈 목표는 무엇일까? 우선은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연주다. 언젠가 “열다섯 살부터 5년 주기로 연주하고 싶다”고 말했던 목표이기도 하다.

“지금보다 더 어릴 때에도 음악이 제 업이라고 항상 느꼈어요. 제 음악이 항상 좋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요즘은 더 좋은 음악도, 좋지 않은 음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스스로 무대를, 음악을 즐길 수 있다면 그걸로 음악을 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10년 뒤에 더 깊은 마음과 생각으로 심도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다면 좋겠어요.”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BRITISH MUSIC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끝나지 않는 음악

2022 마티네 콘서트 '영국으로부터'

올해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는 '영국 음악'을 주제로 진행된다.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영국 출신 작곡가들의 주요 작품들은 물론이고, 영국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작곡가들의 작품들까지 아우르는 폭넓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평소 국내에는 영국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흔치 않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기획이자 귀중한 기회라 하겠다.

이번 마티네 시리즈의 출범에 앞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국 음악의 내력과 주요 작곡가들의 면면을 미리 살펴보자.



헨리 퍼셀의 활약

통상 영국의 음악사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만큼 풍요롭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토머스 탈리스, 윌리엄 버드 등이 활약했던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전성기 이후로 영국 음악계에는 풍요의 시기와 불모의 시기가 교대로 나타났다. 특히 17세기 중엽에는 청교도 혁명을 전후로 왕실과 교회의 권위와 재정이 제한됨에 따라 음악 발전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황무지에도 꽃은 피듯이,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영국 음악은 한 걸출한 작곡가의 등장으로 짧지만 화려한 중흥기를 구가하게 된다. 청교도 혁명을 주도했던 올리버 크롬웰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659년 런던에서 태어난 헨리 퍼셀은 흔히 영국 음악 사상 최대의 작곡가로 추앙된다. 영국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기에 '영국의 바흐', 모차르트처럼 36세에 요절했기에 '영국의 모차르트', 그리고 영국 음악의 신화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영국의 오르페우스' 등 그를 지칭하는 별명들만 봐도 영국에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작곡가인지 알 수 있다. 퍼셀은 평생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거의 모든 장르에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겼는데,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성악 음악이다. 특히 <디도와 에네아스> <아서 왕> <요정 여왕>과 같은 오페라(또는 '세미 오페라')들에서 퍼셀은 영국의 '마스크(신화나 우화를 소재로 대사, 음악, 춤, 연기가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 장르)에 프랑스 및 이탈리아 오페라의 요소를 결합하여 빼어난 극음악을 선보였다. 그러나 퍼셀의 사후 영국 음악은 오랜 침체기로 빠져든다. 특출

한 재능을 갖지 못한 작곡가들, 기존 형식을 답습하되 특별한 영감은 보이지 않는 작품들이 난무하면서 그저 '현상 유지'에 머무는 시기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 음악계의 주도권은 해외에서 유입된 '이방인 작곡가'들의 손에 맡겨졌는데, 그 대표 격 인물이 바로 독일 출신의 조지 프레더릭 헨델이었다.

이방인들의 전성시대

음악사상 최초의 국제적 작곡가였던 헨델은 독일에서 성장기를 보낸 다음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그곳의 음악 양식을 습득했고, 20대 중반 이후 영국에 정착해 음악사에 길이 빛날 걸작들을 써 내려갔다. 그가 영국의 왕실과 대중 앞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유래한 양식들을 그만의 탁월한 감각과 수완으로 조합한 것이었다. 그의 역량이 가장 눈부시게 발휘된 분야는 극음악으로 <리날도> <줄리오 체자레> <알치나> <세르세> 등 약 40편에 달하는 이탈리아어 오페라와 <에스터> <사울> <메시아>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등 20여 편의 영어 오라토리오가 포함된다. 헨델의 뒤를 이은 '이방인 음악가'의 대표 주자는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하이든과 독일의 펠릭스 멘델스존이었다. 두 사람은 산업혁명 이후 파리에 버금가는 음악적 중심지로 부상한 영국 음악 시장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하이든은 에스테르하지 궁정에서의 의무가 경감된 1790년대에 두 차례 런던을 방문해 큰 환대를 받았는데, 당시에 발표한 '런던 교향곡' 시리즈('놀람' '군대



1 본 윌리엄스
2 헨리 퍼셀

MUSIC FROM THE FAIREST ISLE

'시계' 등을 포함한 12곡)는 고전파 교향곡의 완성형이라 할 수 있다. 여행을 좋아했던 멘델스존은 1829년 첫 방문 이래 도합 열 차례나 영국을 방문했는데, 풍부한 재능과 출중한 음악성에 세련된 매너까지 겸비한 그는 영국의 중산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고 빅토리아 여왕과는 친구로 지냈다. 특히 스코틀랜드 여행의 산물인 서곡 <헤브리디스(핑갈의 동굴)>와 교향곡 3번은 그가 남긴 최고 걸작들에 속한다. 영국 음악 시장의 명성과 번영은 19세기 내내 지속되어 수많은 외국 음악가 및 작곡가들을 불러들였다. 멘델스존 외에 베를리오즈, 리스트, 바그너도 영국을 방문했고 세기 후반에는 브람스와 드보르자크가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명성과 번영, 그로 인한 외래 음악의 유입이 자생적 예술 음악의 발전에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결국 영국 음악계는 세기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돌파구를 찾게 된다.

엘가에서 브리튼까지

19세기 말 허버트 패리와 찰스 스탠퍼드가 불을 지핀 '영국 음악 르네상스'는 에드워드 엘가의 손에서 활활 타올랐다. 독일 음악의 영향을 바탕으로 독자적 어법을 모색했던 엘가는 나이 마흔을 넘긴 1899년에 발표한 <수수께끼 변주곡>과 1900년에 초연된 오라토리오 <제론티우스의 꿈>을 통해서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우뚝 섰다. 그리고 1901년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각광받으며 국민 작곡가로 등극했고, 이후에도 두 편의 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 만년의 걸작인 첼로 협주곡 등 중요한 작품들을 내놓으며 '퍼셀 이후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엘가와 더불어 영국 음악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보다 젊은 세대의 작곡가로 레이프 본 윌리엄스와 구스타브 홀스트, 그리고 윌리엄 월튼이 있었다. 1872년생으로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본 윌리엄스는 튜더 왕조 시대의 음악에 깊은 관심을 두었고, 친구인 홀스트와 함께 영국 민요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에도 열의를 보였다. 그 결과 그의 음악은 엘가 이상으로 '영국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토머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중달새의 비상> <푸른 옷소매에 의한 환상곡>과 같은 명작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탄생했다. 아울러 그는 휘트먼의 시구

를 취한 교향곡 1번 '바다', 런던의 풍경과 풍물을 투영한 교향곡 2번 '런던'을 비롯해 아홉 편의 교향곡을 남긴 걸출한 심포니스트이기도 했다. 관현악 모음곡 <행성>의 작곡가로 유명한 홀스트는 민요, 신비주의, 동양 종교 등 폭넓은 관심사를 바탕으로 개성적인 작품들을 남기는 한편 군악대와 합창단을 위한 음악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본 윌리엄스와 홀스트보다 한 세대 늦게 태어나 81세까지 장수한 월튼은 '엘가의 후계자'로 불렸던 인물이다. 불과 열아홉 살 때 작곡한 <파사드>로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특히 1920년대와 30년대에 선보인 비올라 협주곡, 오라토리오 <벨사살의 향연>, 교향곡 1번 등의 걸출한 작품들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고 영화 음악가로도 명성을 떨쳤다. 월튼이 젊은 시절의 현대적인 색채를 줄이면서 후기 낭만적인 경향으로 물러날 즈음, 영국 음악계는 벤저민 브리튼이라는 또 한 명의 걸출한 인재의 부상을 목도하게 된다. 브리튼은 마이클 티팻과 함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영국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무엇보다 그는 불세출의 걸작인 <피터 그라임스>와 일련의 실내 오페라 작품들을 통해서 '20세기 영국 오페라의 유일한 대가'로 여겨지며, 대중적 명곡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부터 장엄한 대역작 <전쟁 레퀴엠>에 이르는 폭넓은 창작 활동을 통해 퍼셀과 엘가의 뒤를 잇는 '영국 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마티네 콘서트는 이제까지 거론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영국 음악'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심도 있게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영국 문학의 대표 주자인 셰익스피어의 명작들에 기초한 음악 작품들로 구성된 8월 공연, 유구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합창 음악의 성찬이 펼쳐질 5월 공연도 체크해두기 바란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음악과는 사뭇 다른 영국 음악의 매력은 여러분의 짐작보다 훨씬 유혹적일 테니까.

글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머리와 가슴의 조화, 상상력과 감동을 중시하는 클래식음악 칼럼니스트. 서울 예술의전당과 성남아트센터에서 감상강좌를 진행하는 한편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2022 마리네 콘서트

MUSIC FROM 'THE FAIREST ISLE'

영국음악의 부활, 엘가

2022년 3월 17일(목)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엘가 / 아침의 노래
Chanson de matin, Op.15, No.2

엘가 / 첼로 협주곡
Cello concerto in E minor, Op.85

엘가 / 수수께끼 변주곡
Variations on an Original Theme
'Enigma', Op.36

★

성남시립교향악단
지휘 이승원
첼로 한재민

V I
E W



연극만원 <그때도 오늘>

- 24 **미리보기 1**
슈베르트의 마지막 노래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 26 **미리보기 2**
예술가의 삶이 작품이 되는 순간
아티스트 인사이트 시리즈 I
- 28 **미리보기 3**
어제의 이야기로 오늘을 비추다
연극만원 <그때도 오늘>
- 30 **미리보기 4**
벽 대신 시간을 사이에 둔 공간
2022 딜라이트 성남

슈베르트의 마지막 노래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 sangwook lee

‘피아노로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는 피아니스트’ 임동혁. 그가 3월 성남시 수정구 옛 성남시민회관 자리에 새롭게 문을 여는 성남아트리움 무대에 선다. 슈베르트의 마지막 소나타 D959와 D960, 작곡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남겨놓은 ‘음악적 유언’과도 같은 작품의 내면을 누구보다도 깊숙이 이해하고 풀어내는 연주자와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1년 12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클래식 콩쿠르로 꼽히는 롱티보 콩쿠르 우승이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피아니스트인 마르그리트 롱과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자크 티보의 이름을 따서 롱티보로 명명된 이 콩쿠르는 1943년 1회 우승자로 상송 프랑수아를 배출했던 프랑스 최고 권위의 콩쿠르다. 당시 임동혁은 스타니슬라프 부닌이 보유 중이던 최연소 우승 기록을 깨고 17세의 나이로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 우승, 그리고 솔로 리사이틀상과 오케스트라상, 파리음악원학생상 등 5개 부문을 거머쥐었다. 당시 한국인으로서 매우 드문 메이저 콩쿠르 우승이었고 임동혁에게는 마스크와 평단의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 임동혁은 당대 최고 인기를 누리던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장영주), 첼리스트 장한나의 뒤를 이어 유서 깊은 EMI클래식 레이블에서 데뷔 앨범을 발매한다. 특히 이 음반은 ‘피아노의 여제’로 불리는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강력 추천으로 제작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화제를 모았고, 권위 있는 클래식 잡지 <디아파종>이 선정한 ‘최고 추천 음반(디아파종 도르)’에 오르는 등 평단의 호평도 잇따랐다. 이후에도 임동혁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200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에 올랐으나 심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상을 거부했고, 이는 콩쿠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2005년 형 임동민과 함께 출전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두 형제가 소수점까지 동일한 점수로 공동 3위에 올라 최초의 한국인 입상자로 기록되었다. 2007년에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4위를 획득해 소위 세계 3대 콩쿠르에서 모두 입상한 유일한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DONG HYEK LIM & SCHUBERT

슈베르트의 내면 속으로

임동혁의 디스코그래피는 쇼팽(쇼팽 리사이틀, 쇼팽 전주곡집), 바흐(골드베르크 변주곡),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2번)처럼 평소 그가 좋아하는 작곡가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늘 애정을 과시하던 슈베르트의 녹음은 정작 찾아보기 힘든데, 현재까지 데뷔 음반에 수록된 4개의 즉흥곡, D899가 전부였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과 함께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듀오 앨범(DG)을 발매하기는 했지만, 팬들은 그가 연주하는 온전한 슈베르트의 피아노 작품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사실이다.

작년 가을, 임동혁이 처음으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앨범을 녹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31년을 살다 간 슈베르트의 삶을 훌쩍 넘어선 37세 피아니스트의 도전, 1828년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연달아 작곡한 3개의 피아노 소나타 중 마지막 2곡(D959, D960)이다. 슈베르트 최후의 소나타 세 곡은 ‘슈베르트의 3대 피아노 소나타’로 불릴 만큼 작곡가의 모든 음악적 역량이 드러난 작품으로 슈베르트 피아노 음악의 백미로 꼽힌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10년 동안이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토벤의 소나타가 다져놓은 탄탄한 고전파 소나타의 형식 위에 슈베르트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난 곡이다. 또한 이후 등장하는 낭만파 작곡가들의 피아노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 많은 형제와 함께 자랐고, 볼품없는 외모에다 결혼은커녕 연애도 변변이 못 해본 슈베르트는 생전 음악가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생의 마지막 해에 가서야 겨우 자신의 피아노를 가질 수 있었던 곤궁한 음악가였고, 첫 리사이틀을 열었던 31세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한 불행한 작곡가였다. 이렇듯 지리지리 복도 없던 슈베르트는 언뜻 보기에는 빛나는 이력과 화려한 스펙의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닮은 점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임동혁은 슈베르트의 음악이 품은 내재적인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닌 연주자이자,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선율 속에 숨어 있는 절망과 슬픔까지 찾아내 피아노로 풀어내는 탁월한 피아니스트이다. 임동혁 역시 언젠가 이런 이야기로 작곡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바 있다.

“제가 ‘쇼팽 스페셜리스트’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쇼팽 음악의 낭만성이 저와 잘 맞기는 하지만 가장 잘 맞는 음악가는 오히려 슈베르트입니다. 저는 피아노로 노래하는 게 좋거든요. 그것이 피아니스트로서 제가 가진 재능이고 장점입니다. 그리고 슈베르트야말로 노래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음악 속에 노래를 숨겨놓은 슈베르트와 피아노로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는 임동혁이 오는 3월 새롭게 개관하는 성남아트리움 무대에서 슈베르트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D959와 D960 두 곡을 연주한다. 작곡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남겨놓은 ‘음악적 유언’ 같은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풀어낼 수 있는 연주자와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기회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들려주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두 곡은 지친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의 새 음반과 함께 손꼽아 기다려지는 무대다.

preview
임동혁 리사이틀

3월 19일(토) 17시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031-783-8000

글 이상민 음악칼럼니스트

예술가의 삶이 작품이 되는 순간

아티스트 인사이트 시리즈 I
조진주 & 앙상블 아파시오나토



© Rémyrière

성남아트센터의 기획 공연 시리즈인 '아티스트 인사이트'는 예술가가 공연과 함께 자신의 삶을 무대에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무대다. 2022년 첫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와 앙상블 아파시오나토가 그 문을 연다. 새 봄 우리 모두 함께 빛어나갈 음악의 선율, 인생의 선율, 그 빛나는 순간들을 미리 만나보자.

새로운 시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힘은 경험과 영감에서 나온다. 예술은 앎을 넘어 존재하고 세상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한다. 성남아트센터가 지난 2021년 하반기 새롭게 선보인 기획공연 '아티스트 인사이트'는 청중이 예술가의 내면 이야기를 들으며 음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펼쳐내 큰 호평을 받았다. 발레리노 김용걸 & 한국무용가 김미애, 뮤지컬 배우 홍지민, 첼리스트 김두민 & 피아니스트 김태형, 가수 바다 & 작곡가 심연주, 그리고 피아니스트 백혜선까지 지난해 그들이 무대에서 나눈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예술과 어우러져 많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22년 '아티스트 인사이트'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예술가들을 집중 조명하며 다양한 각도, 폭 넓은 시선으로 청중을 찾아간다. 새해의 첫 번째 무대를 빛낼 연주자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ARTIST INSIGHT

와 앙상블 아파시오나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가 새해를 여는 청중의 마음을 어떻게 감싸 안을지 기대를 모은다. 이날 조진주와 아파시오나토는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포레의 <자장가>, 라벨의 <치간느>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생상스의 <아바네즈>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로망스>를 연주한다.

2020년 소니 클래식을 통해 국내 첫 정규 앨범 <La Capricieuse>를 내놓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는 2021년 음악 에세이집 『언젠가 반짝일 수 있을까』를 발매해 주목받았다. 2006년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 1위, 20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 콩쿠르 1위, 2011년 윤이상 국제 콩쿠르 2위, 2012년 앨리스 & 엘레노어 쉐펠드 콩쿠르 1위, 그리고 2014년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콩쿠르 1위까지 그녀의 음악 커리어는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빛난다. 하지만 지금의 조진주를 만든 건 콩쿠르 우승 결과가 아니었다. 그녀는 콩쿠르 우승 이후 무거운 왕관의 굴레를 벗고서 좁고 불투명해 보이는 자기만의 길로 당당히 걸어갔다.

“우승의 환희보다 결과가 발표된 직후 나를 꼭 안아주던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 소중했다”고 말한 그녀는 콩쿠르 우승 이후 자신을 수많은 도전 속으로 던졌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음악 동료들을 만났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으며, 그녀만이 전할 수 있는 특별함을 청중에게 선물했다.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의 맥길 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연주와 교육을 비롯해 음악회를 기획하고 ‘앙코르 챔버 뮤직 캠프’를 설립해 음악감독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함께 연주할 앙상블 아파시오나토는 에벤 콰르텟의 창립 멤버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마티외 에르조그가 2015년 설립한 단체로 실내악과 교향곡의 매력을 자유자재로 들려주는 오케스트라 겸 앙상블이다. 새롭고 참신한 음악적 열정으로 21세기 체임버 오케스트라만의 새로움, 우아함, 비전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재능 있는 실내악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역동적인 앙상블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해오고 있다. 다방면에 걸친 프로그래밍, 정밀한 앙상블 작업, 명확한 음색과 악기의 화합은 앙상블 아파시오나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휘를 맡은 마티외 에르조그는 모차르트가 남긴 마지막 세 개의 교향곡을 직접 지휘하고 녹음한 음반을 나이브 레이블로 발매해 주목받았고, 오페라 각본 창작이나 편곡 등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블라리쿰 음악축제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으며 2021/22 시즌에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간사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 각지 교향악단의 객원지휘자로 무대에 올랐다.

특히 2021년 10월 나이브 레이블을 통해 첫 협주 음반 <생상스>를 발매한 조진주, 앙상블 아파시오나토가 빛어낼 독창적인 음악 세계가 더욱 기대를 모은다.

2022년 '아티스트 인사이트' 시리즈는 2월 25일 공연 이후 4월, 6월, 10월, 12월에 걸쳐 펼쳐진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무대 위 내면의 풍경들은 어떤 모습일까? 청중의 마음이 움직이는 무대. 예술가의 삶이 작품이 되는 순간이다.

preview

아티스트 인사이트 I
조진주 & 앙상블
아파시오나토

2월 25일(금) 19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031-783-8000

글 국지연 음악칼럼니스트



연극만원 <그때도 오늘>

어제의 이야기로 오늘을 비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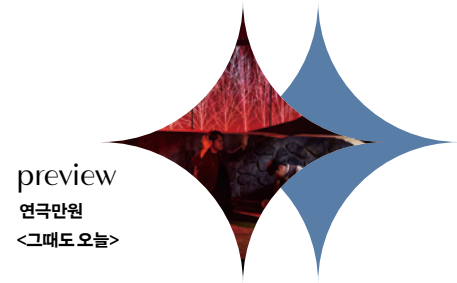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연극계 화제작들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연 시리즈가 올해에도 성남아트센터 무대를 찾아온다. 2022년 연극만원 시리즈는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의 따끈한 신작 <그때도 오늘>로 첫 무대를 연다. 우리 근대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어제의 이야기로 오늘을 비추는 남다른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올모스트 메인> <뜨거운 여름> <나와 할아버지> <템플> 등 신선한 소재와 따스한 감성을 담아낸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면서 관객들의 두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가 오랜만에 따끈한 신작으로 2022년 무대의 막을 올린다. 배우 겸 작가인 오인하가 쓰고 민준호가 연출한 신작 <그때도 오늘>은 격동의 한국 근대사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4개의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순간들을 각기 다른 언어와 관계 속에 풀어냄으로써 보다 다채롭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연극이다.

어제와 오늘을 잇는 시선

<그때도 오늘>은 서로 다른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1920년대 독립군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다 일본군에게 잡힌 학교 선후배, 1950년대 제주 4.3사건 직전에 땅을 두고 논쟁 중인 두 이웃, 1980년대 유치장에서 만난 월남군 참전 용사와 운동권 대학생, 그리고 2020년대 최전방 초소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선임과 후임. 각각의 이야기는 모두 다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4개의 에피소드를 하나로 잇는 공통의 요소를 보여준다. 등장인

FROM THE CONVERSATION



preview
연극만원
<그때도 오늘>

3월 19일(토)~20일(일) 14시, 18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031-783-8000

물들이 모두 거대한 역사적 꺾임 앞에 서 있다는 점과 그 속에서도 그들이 미묘한 갈등으로 갈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감금과 고문, 폭격과 전쟁 등 거대한 비극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논쟁을 이어간다. 다 같이 독립을 꿈꾸면서도 독립군 활동과 조선어학회 활동을 놓고 우열을 가리고, 같은 땅을 일구며 살아가면서도 제주도 토박이와 이주민을 구별하며,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민주화에 대한 의견차로 대립하고, 함께 보초를 서면서도 선임과 후임은 다른 언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가는 이렇듯 공통의 비극 속에서도 늘 '나'와 '너'를 나누고 구분하는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오늘'을 만든 것이 바로 '어제'의 우리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런 분열을 넘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지 관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4개의 에피소드 각각이 나름대로의 재미와 안타까움을 전달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통시적 관점이 작품 전체를 아우르며 마지막에 묵직한 메시지를 남기는 작품이다.

두 배우의 호흡이 빛나는 순간

<그때도 오늘>의 모든 에피소드는 두 사람의 대화로 펼쳐진다. 오로지 배우 두 사람의 힘으로 무대를 채우고 극을 이끌어야 하는 2인극의 특성상, 배우 각자의 개성과 둘 사이의 호흡이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배우 중심 극단인 간다의 저력이 빛을 발한다. 지난 10년간 극단 간다는 이희준, 진선규, 민준호, 김지현, 박민정, 정선아 등 수많은 인기 배우들을 배출했고 이들은 현재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다는 다른 소속의 배우 혹은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도 종종 함께 공연하며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는데, 덕분에 이들의 무대에서는 늘 반갑고도 새로운 얼굴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성남아트센터 공연에는 간다와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이희준/오의식 배우가 출연해 두 사람만의 매력과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평양, 제주, 부산, 충청 등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서로 다른 사투리를 맛갈스레 소화하는 두 배우의 카멜레온 같은 언어와 대화에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굳터더기 없이 깔끔한 연출로 유명한 민준호 연출이 <그때도 오늘>에 힘을 더한다. 각기 다른 시대를 상징하는 오브제를 사용해 어제와 오늘을 잇는 연결점을 보여주면서도 최대한 무대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배우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민 연출의 장점이 이번 공연에서도 또렷하게 드러난다. 한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3월,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을 다시 생각하는 연극 <그때도 오늘>을 통해 차분한 여유와 사유로 봄날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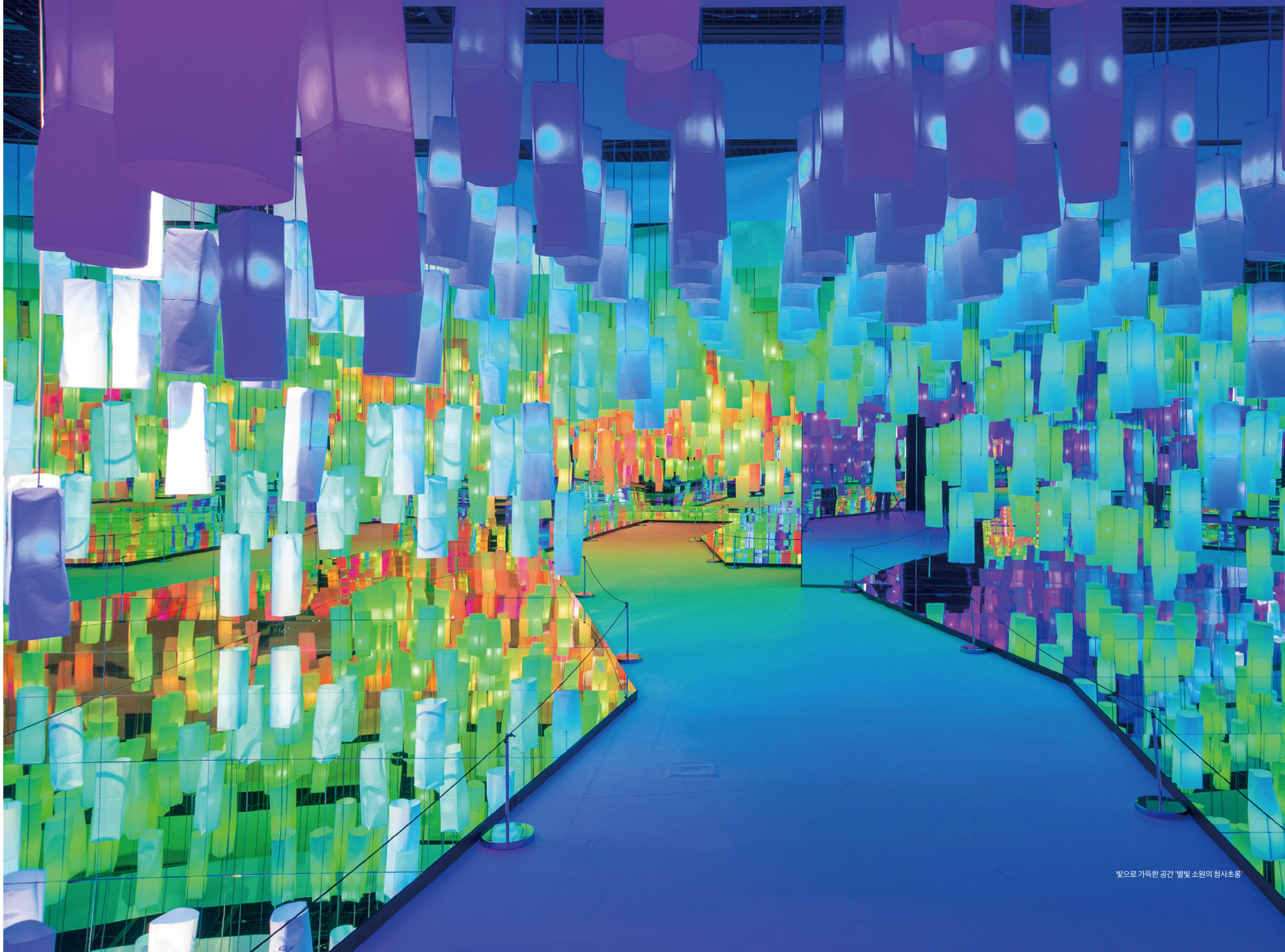


글 김주연 연극평론가
사진 제공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벽 대신 시간을 사이에 둔 공간

2022 딜라이트 성남

인간의 감각은 시간을 정직하게
읽어내지 못한다. 과거의 어느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 음악 한 소절, 그림 한
점, 향수 한 방울에 정방향으로 흐르던
시간이 순식간에 역행하기도 한다.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지난 12월부터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 전시
<2022 딜라이트 성남> 역시
마찬가지다. 총 7가지 테마로 구성된
이 미디어 전시는 각 공간마다 초월적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오래된 기억이
투영된 벽면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새로운 추억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빛으로 가득한 공간 '별빛 소원의 청사조동'



- 1 흑백 기와집과 네온 컬러의 배경이 이질적이면서도 조화롭다
- 2 과거 잔치날에 주로 사용되던 청사초롱
- 3 수많은 사람의 소원이 담긴 만월, SNS의 인증샷 명소다

시작은 과거로부터

어두운 공간에 깃든 기묘한 열두 존재. 땅을 지키는 십이지신이다. 얼굴은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등의 동물이지만 몸은 사람의 것을 취한다. 옛 중국 당대 문헌에서는 이들을 시간의 신이라 표기했다고 한다. 당 중기 이후 농묘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12지신의 숲' 내부에 자리한 기기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나의 수호신을 찾을 수 있다. 생년월일에 맞추어 소소한 운세도 알려준다.

질어지는 어둠과 자욱한 안개, 그 너머로 말없이 빛을 발산하는 달의 모습이 보인다. 한 점의 어둠도 완벽히 등근 빛의 모양을 훼손하지 못했다. '빛의 회랑' 속 응축된 달빛을 마주하며 조용히 소원을 빌어본다. 이 순간, 과거에 햇불을 들고 뒷동산에 올라 만월을 기다리던 선조들과 시간을 공유한다. 달이 쏘는 광경을 남보다 먼저 보기 위해 앞 다투어 뛰어오는 아이들의 발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기억을 잇는 길

수많은 청사초롱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조선 시대에 사용하던 청사초롱은 주로 궁중 연회나 혼례식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각각의 청사초롱에는 잔치날의 흥분과 기쁨이 잔뜩 묻어났을 것이다. 청사초롱마다 설레는 일화가 담겨 있는 덕분인지, '별빛 소원의 청사초롱' 길은 지나는 이의 마음마저 들뜨게 한다. 이곳에 자리한 등롱들은 초 대신 조명을 넣어 시시각각 색을 바꾼다. 보랏빛, 푸른빛, 분홍빛, 노란빛 등 빛의 변화에 따라 공간 자체가 낯설게 느껴진다. 화려한 빛에 가렸던 길의 끝에는 검은 문이 자리한다. 문 너머, 색깔과 질감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오늘을 은유하는 것들

과거를 거쳐 마주하는 현재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익숙하기만 했던 도시는 미처 인식



MOMENTS OF DELIGHT



하지 못했던 글자로 채워져 있다. '다이나믹 성남' 중심에 서서 주위를 맴도는 문장들을 찬찬히 읽어본다. "성남시는 철거민이 세운 구름 위의 도시, 서울을 돌보려는 마음이 닦은 터, 달나라와 별나라로 불렸다." 이처럼 짧은 글귀들이 도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 지금 이 도시를 채운 빛이 달빛이나 별빛이 아니라 모두가 꾸준히 닦아온 일상의 전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지런한 이 도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다. 때론 거리에서 마주치는 쇼핑물 간판이 새로운 선택을 부추기고, 익숙한 주차 표지판이 지금 잘하고 있다며 다독이고, 깜빡이는 지하철 전광판이 다음 열차의 소식을 전해준다. '거리, 은유'에서는 성남시의 다양한 간판, 표지판, 전광판이 한데 모여 저마다의 목소리를 낸다. 은유적인 메시지가 가득한 이 공간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아도 좋겠다.

이야기는 그렇게 반복된다

깊은 바다에 발을 담그자 오래된 설화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마치 <별주부전>의 토끼가 되어 자라의 등에 타고 바다 속을 구경하는 듯하다. 거센 물결을 지나 화려한 금빛 용궁이 점차 가까워진다. 그림책 작가인 계명진 아티스트의 서정적인 일러스트가 미디어 파사드로 생생하게 구현되었다. 영상에 삽입된 자막도 '설화'라는 공간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어느 늦은 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이야기처럼 재미나고 신비롭다.

'성남 스토리'는 시간의 경계를 없애고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간다. 동시간대에 존재할 수 없는 요소들을 영상 속 한 장면에 배치했다. 오래된 흑백 전화기와 흑백 기와집 뒤로 현대적이고 컬러풀한 배경이 퐁퐁 튀며 움직인다. 결국 전시는 앞으로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여기, 이 마지막 공간에서 전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preview
2022 달라이트 성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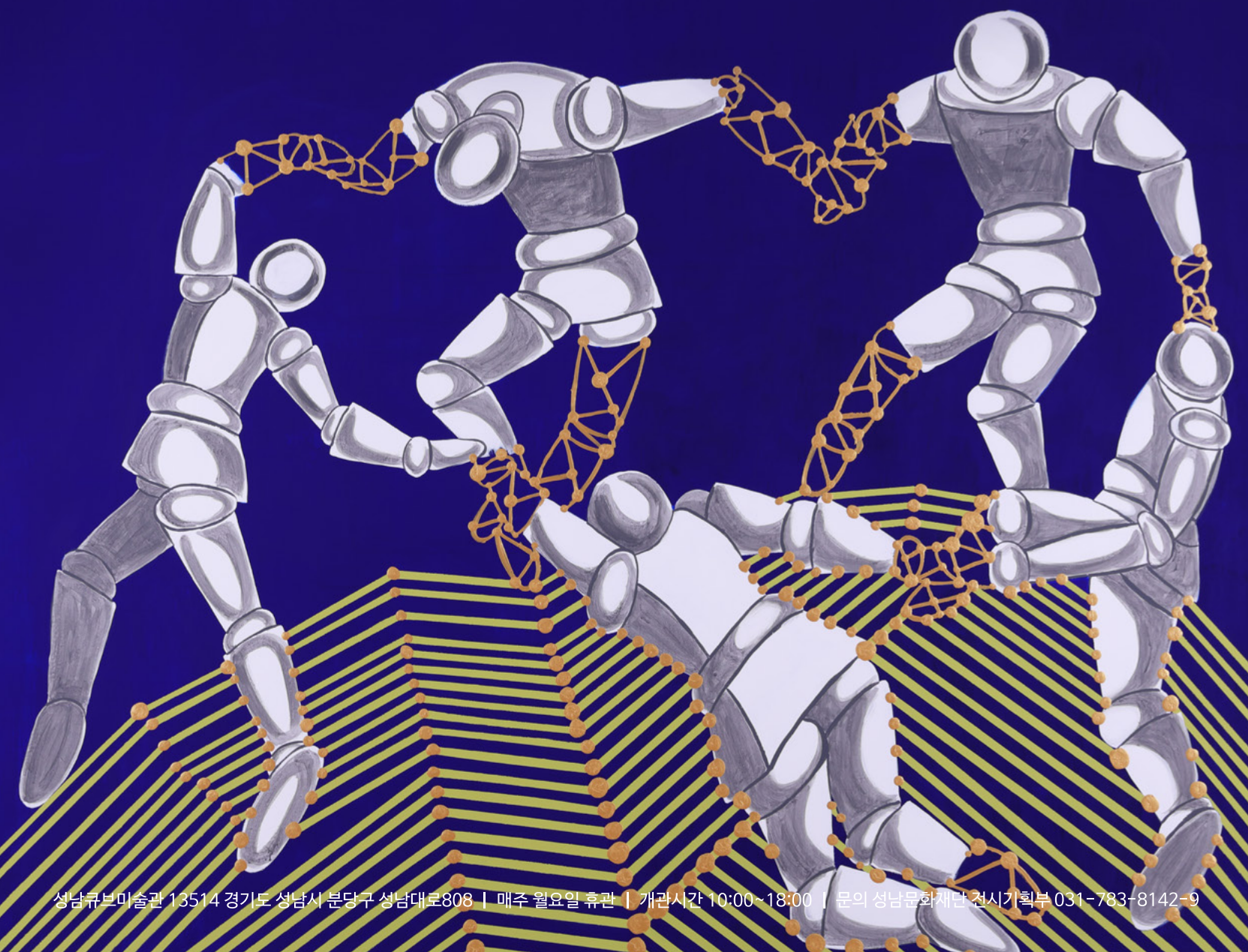
4월 15일(금)까지,
10시~18시(월요일 휴관)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070-7760-0026

글 김호경 객원기자
사진 최재우

2021성남큐브미술관 신소장품전

유연한 풍경

2022.2.4(Fri) - 5.15(Sun)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ART CURATOR

- 36 **기후변화와 예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움직임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 38 **기술과 예술**
내 건 유일해, 그리고 특별해
NFT가 선사하는 인생의 보물
- 40 **미술 길라잡이**
미술 감상이 어려운 당신에게
미술 작품의 특성과 미술 시장 이해하기
- 42 **일상에서의 디자인**
조의(弔衣)
반려 재킷을 떠나보내며
- 44 **영화 속 클래식**
삶은 여행, 과정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트립 투 이탈리아>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46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뉴욕: 도시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다
장소성과 역사를 아우르는 재생건축의 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움직임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문화예술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관심 있는 극소수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후위기 시대 예술에 대한 논의는 점차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어느새 몇몇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에는 탄소 감축 방안이 필수 기재 항목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예술 분야의 대다수는 기후위기를 전혀 나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 아마도 한낱한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경험하는 순간성을 고유한 가치로 여기는 공연이나 전시, 축제를 만들고 관람하는 예술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예술의 환경적 책임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인간이 생활하며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는 흡수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0)의 상태를 만드는 탄소중립은 산업화와 기술 발전을 통해 안락한 삶을 추구해온 인류에게는 근본적인 체제와 구조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생활 방식을 모두 재점검해, 환경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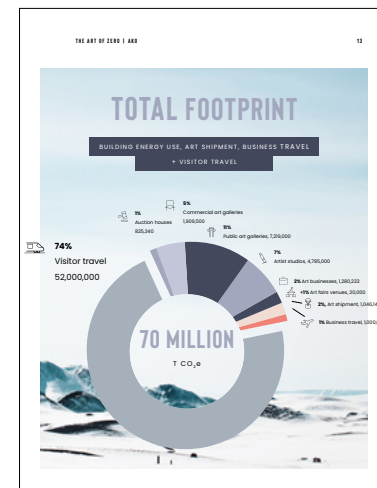
거나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환경에 대한 예술가와 단체의 관심이 단순한 창작의 소재로 활용되거나 자원 재활용 시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를 넘어 창작과 유통 과정 전반의 점검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 관객들과의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까지,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에서는 예술 활동이 탄소중립의 주요 분야인 에너지(공간), 교통·수송, 폐기물 등과 관련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에 대한 고민이 앞섰던 예술 단체의 다양한 시도를 살펴본다.

에너지(공간)
예술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80% 이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며,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에너지 전환을 잘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무대,

기후변화를 넘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멀리 있는 북극곰과 펭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1~2년 사이 전 세계가 경험한 동시다발적 기후재난과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로 연결된 지구상에 홀로 안전한 국가나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은 동시대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업의 ESG 열풍을 이끌고 있다.

조명, 음향 및 공간 운영과 관련해 필수적인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가능하다. 현재 시도되고 있는 방법들은 조명을 LED로 교체하거나 녹색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건물에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해 자체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는 식이다.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13년 상주홀인 데이비스 홀 옥상에 558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15%의 필요 전력을 충당하고 있으며, 영국 국립극장은 1970년대에 지은 극장의 에너지 효율 개선만으로도 2016년 대비 25%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 최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어 계획을 발표한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는 BMW사와의 협력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재생에너지로 충전 가능한 특별한 쇼 배터리를 개발했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투어에서 소개될 12개 분야에 걸친 환경적 대안의 효과가 입증되고 추후 그 영향이 공연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

- 1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주홀인 데이비스 홀 옥상에 설치된 558개의 태양광 패널
- 2 영국의 예술 분야 환경 컨설팅 전문 단체 <줄리의 자전거>의 발간 보고서 <제로의 예술>

교통·수송
매 공연 분야별 환경적 영향과 탄소발자국을 측정해 발표하는 영국 극단 피그풋 시어터Pigfoot Theatre에 따르면, 78%의 탄소발자국이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해 영국의 예술 분야 환경 컨설팅 전문 단체인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에서 발간한 '제로의 예술The Art of Zero' 보고서는 전시 관람객의 이동이 74%의 탄소발자국을 발생시킨다고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관객과 작가(작품)의 교감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 활동의 특성상 작품 제작과 운영 과정 외에도 관객의 행동이 환경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술 분야에서 관객과의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고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많은 축제와 예술 단체들은 관객들이 자전거나 전기차 등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 인증 시 리워드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술가들의 이동 수단 역시 영향이 적지 않다. 2019년 핀란드의 헬싱보리 심포니Helsingborg Symphony Orchestra는 지휘자와 협연자들의 이동을 위한 항공기 이용 중단을 선언했고, 공연 연습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스태프들에게 주차권이 아닌 대중교통 카드를 제공한다. 이러한 실천은 언뜻 보기에 환경적 고려가 예술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참여자들의 호응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미 유럽 예술계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반영된 정책이라 하겠다.

폐기물
공연·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대 세트와 전시 설치물 등의 제작은 폐기물 이슈로 연결된다. 가급적 제작 단계부터 재사용, 재활용과 폐기를 고려

<아트뷰>에서는 이 지면을 통해 기후위기 속 예술계의 다양한 움직임과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해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 최소한으로 제작하고,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운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덕션과 투어가 운영되는 수개월 동안 모든 스태프와 출연진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공연 기간에 관객들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해 플라스틱 생수병이나 종이컵 사용을 배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영국 국립극장은 극장 관객들의 다회용 컵 소비를 독려해 첫 2개월 동안에만 20만 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백조의 호수>로 잘 알려진 매튜 본 컴퍼니 '뉴 어드벤처스 New Adventures'는 친환경 테크라이더를 핵심으로 하는 그린 투어링 방안을 마련해 폐기물 최소화를 실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3년 지속 가능한 공연 활동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공쓰재(공연 후 쓰고 남은 무대 소품, 세트 재활용을 위한 커뮤니티)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예술적 고민에서 행동은 시작된다
위의 사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예술 활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특별하거나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실천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막상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에, 또 많은 이들이 종종 무력감을 느끼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예술은 힘을 발휘한다. 기후위기를 예술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예술적 고민과 성찰이 담긴 실천을 공유하는 것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은 시작된다. 그러니 이 시대의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접어두자. 이제는 행동할 때다.

글 최지원 (재)기후변화센터 지식네트워크팀장
고양문화재단과 악당이반에서 공연, 축제, 소리 콘텐츠를 기획했다. 현재 기후변화센터에서 일하며 미래 세대의 기후-환경감수성 회복과 문화 예술 분야의 기후위기 인식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내 건 유일해, 그리고 특별해

NFT가 선사하는 인생의 보물

무한 복제가 가능한 이미지 파일로 이미지의 포화 시대가 도래했다. NFT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영혼까지 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서술하자면, 배타적인 저작권은 훔쳐갈 수 없다는 것.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NFT이다.

NFT: 내 건 유일해. 그리고 특별해.

온 세상 통틀어 나만 가졌으니까.

FT: 뭘 소리야? 결국에는 네 거나 내 거나 다

똑같아. 돈은 그저 돈일 뿐!

열 살 무렵의 일이다. 난생처음 용돈으로 만 원 지폐 한 장을 받았다. 물론 어른들이 보기에 큰돈은 아닐 거다. 하지만 그때에는 내 소유라는 뿌듯함에 보고 또 보고, 만지고 또 만졌다. 얼핏 보면 모르고 지나칠 문양도 한쪽에 살짝 그려 넣었다. 그런데 때가 타거나 구겨지거나, 혹은 아예 찢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누가 슬쩍하면? 결국 고민 끝에 결정했다. 은행에 입금하기로. 창구에서 기념사 진도 남겼다. 담당 직원은 환하게 미소 지었고 10년이 지났다. 이제 나도 어른, 그 지폐를 기념 액자로 만들어 내 방에 걸어놓고 싶었다. 그래서 은행에 방문, 출금 의사를 밝혔다. 설레는 마음, 오랜 만이다. 담당 직원이 만 원권 지폐를 건넸다. 내 표정, 이내 굳었다. 이건 뽀뽀한 신권 아닌가? 난생처음 경찰서에 갔다. 점잖게 타이른다. 학생,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물론 맞는 말이다. 아까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아니, 10년 전에 말긴 내 지폐를 줘야지.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인가? 이러자고 내가 은행에 말긴 줄 알아? 그래, 본격적으로 미아 찾기 시작이다. 미안하다. 그동안 널 잃은 줄도 모르고 인생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 그런데 만 원 입금하고 만 원 출금했으면 그게 뭐가 문제지? 문제다. 최소한 당사자인 상비니에게는. 그가 믿고 건넨 만 원짜리 지폐는 그의 손때가 묻은 그만의 고유한 유물이다. 비유컨대, 내가 그린 작품을 보관소에 맡기고 다시 찾는데 황당하게도 남의 작품을 돌려준다. 내 작품 내놓으라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정확히 같은 가격의 작품이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직원이 오리발을 내민다. 와, 부아가 치민다. 이러다 내 명에 못 살겠다. 여러분, 여기서 상비니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저기 안경 쓰신 분, 말씀해주세요. 아니, 눈썹 짙은 분이요.

“제 생각에 상비니는 바보라서요.”
 “키득키득.”
 그럼, 눈썹 짙은 분이요?
 “상비니가 말긴 돈이 작품이라면 공감이가긴 해요.”
 그런데 그가 말긴 돈은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단정해요? 최소한 그에게는 작품이 맞지 않나요? 결국 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쉽네요. 그에게는 그 지폐가 교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작품이지만, 은행 측에는 그저 교체 가능한 똑같은 화폐일 뿐이잖아요?
 여기서 전자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그리고 후자는 FT(fungible token, 대체 가능 토큰)와 통하네요. 자, 이제 말투 바꿉니다.

기술과 결합해 완성한 예술의 고유성

NFT는 신조어다. 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음악, 혹은 기념품 등의 특정 디지털 파일을 블록체인의 기술과 1:1로 연결하며 탄생한다. 이때의 대표적인 장점 네 개, 다음과 같다.
 첫째, 족보가 확실하다. 즉, 이 기술에 따르면 저작과 유통 과정 등에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래서 도무지 사기 칠 수가 없다. 반면에 실물 작품은 종종 위작 여부가 문제시된다.
 둘째, 소유권이 보장되고 안정성이 높다. 아무리 복제되어도 원본은 단 하나다. 그리고 디지털 파일기에 물리적인 파손이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아무리 백화점을 들락날락해도 내가 건물주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NFT 소유자와 똑같은 파일을 소유하더라도 내가 그 파일의 주인은 아니다. 반면에 실물 작품은 도난당하거나 낡고 망가질 수 있다.
 셋째, 비대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거래된다. NFT는 여러 거래소에서 실물 작품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그런데 실물이 아니기에 직접 볼 필요도 없고,



물리적으로 양도되지 않기에 훨씬 간편하다. 따라서 주식처럼 거래 속도가 빠르다. 반면에 실물 작품은 부동산처럼 거래 속도가 느리다. 그때그때 물리적으로 검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넷째, 여러모로 예술계를 확장한다. 미술 시장의 경우, 예전에는 유화로 그린 실물이 컴퓨터로 그린 이미지 파일보다 통상적으로 금전적인 가치가 높았다. 하지만 NFT를 거래하는 비물질 시장이 열리자 이제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창작한 이미지 파일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더불어 소리나 동작, 혹은 예술로 여겨지지 않던 영역 또한 거래 가능한 작품으로 변환되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이 끝없이 기록되는 특성상, 설정에 따라 자신의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계속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작품을 등록하고, 해당 커뮤니티에 자신을 열렬히 홍보할 수도 있고. 결국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창작자가 되고 무엇이든 작품이 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예술 천국?

예술 혁명, 시대적 요청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 신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세상 시스템이 '민고 거래해'라는 식으로 이를 보증한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 이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내 것만 진짜'라는 소유욕과 과시욕을 충족시킨다. 한편으로, 최근의

유행은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돈이 풀리니 '지금 한탕'이라며 투기 세력이 요동치기에.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혁신의 가치는 엄청나다. 수많은 굴곡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살아남는다면 그동안의 폐쇄적인 시장을 극복하고 문화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 나름대로 이바지하지 않을까? 여기서 번치 않는 진실 한 가지! 자고로 예술은 객관적인 '겉모습'보다는 주관적인 '속생각'이 중요하다. 개념적으로 전자가 자신의 소속을 규정하는 '명사적 정의'라면, 후자는 자신이 처한 '형용사적 상태', 혹은 이를 유지하려는 '동사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유컨대, 역사는 잘생긴 외모보다 고매한 신념과 행동을 높이 산다. 혹은, 문자 자체보다 행간의 의미가 중요하다. NFT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파일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그저 겉모습일 뿐, 그렇다고 '영혼'을 복제할 수는 없다. 이를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배타적인 저작권'을 훔쳐갈 수는 없다. 내가 저자인데 남들이 내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그저 도용일 뿐! 물론 독서나 인용은 무한 자유다. 하지만 저자는 영원히 나다. 그렇다면 '영원한 상태'가 곧 '영혼'? 이를 위해 NFT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창작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소위 무소불위 '영혼'의 가치를 부여한다. 물론 소유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으니 여기서 '영혼'은 내 집을 등록하는 등기로 비유 가능하다. 아, 말 그대로 '영혼'을 팔 수 있구나. 한편으로 나는 내 몸짓이나 언행 등을 예술화하는 잠재력에 주목한다. 즉, 작품으로서 완성된 조형적 결과물보다는 이를 형성하는 상징적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2006년 3월 22일에 트위터 창립자인 잭 도시 Jack Dorsey, 1976~가 남긴 생애 첫 번째 트윗은 바로 그의 판매 결정에

따라 2021년 3월 24일에 한 NFT 거래소에서 경매로 미화 2,915,835.47달러에 낙찰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거래는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지는 공인의 역사적인 행동과 집단적인 기대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만이 작품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예술품'이라는 배타적이거나 지엄적인 개념도 문제되고, 이를테면 그들의 행동 자체가 곧 예술적인 1인 창작자가 넘쳐난다. 결국, 관습적인 권위에서 탈피해 우리 모두 예술가 되기,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기! 이는 당연한 '예술 혁명'의 시대적 요청이다. 그런데 평상시 우리 대부분의 손짓, 발짓, 눈짓, 말투는 종종 잊게 마련이다. 그러나 낭만적인 '개인주의'의 신화 아래 개념적으로 이들 모두는 유일무이한 NFT가 맞다. 즉, 아무리 작은 몸짓이라도 그 개인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최소한 내 우주에서는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중요한 작품 아니던가? 사방에 비슷한 게 아무리 넘쳐나도 내 건 단 하나, 나만 유일한 소유자다. 나는 나, 특별하고 소중하니까. 그렇다! 예술가는 태생이 NFT, 그리고 내 인생이 최고인 우리들은 태생이 예술가다. 개념미술가 존 발데사리 John Baldessari, 1931~2020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난 지금 예술하고 있어 am making art"라고 되뇌었던 퍼포먼스 아트 1971처럼 오늘날, 내 일도 나만의 NFT를 남발하자. 최소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마당에 혹시나 사회문화적인 의의까지 담보된다면, 즉 세상이 이를 반긴다면 뭐, 좋아. 눈빛 반짝! 미소 씨익!

글 임상빈 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미술 작품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 교육과 예술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자신만의 예술적인 통찰을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심화, 확장된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다. www.sangbini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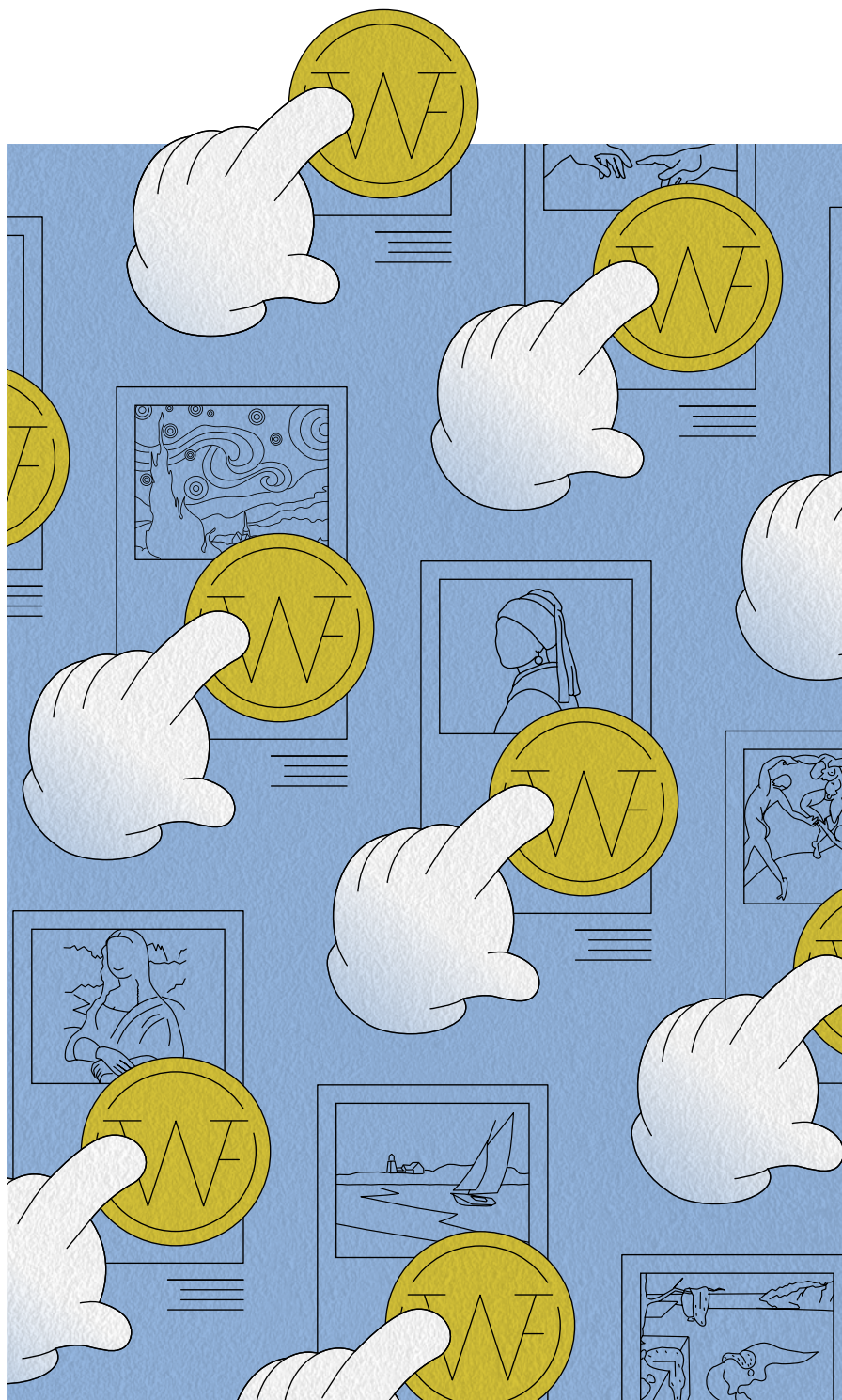
미술 감상이 어려운 당신에게

미술 작품의 특성과 미술 시장 이해하기

* 3월 8일부터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김중현 아트디렉터의
<미술 애호가 및 컬렉터 과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술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미술 작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미술 작품을 접할 때 많은 분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미술은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미술 작품에 관심은 있지만 접근이 부담스럽다는 분들을 위해, 이 지면에서는 앞으로 6회에 걸쳐 미술 작품과 시장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초보 컬렉터 여러분이 실전 투자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몇 천 원짜리 소품을 발견한다면, 그 물건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쉽게 구입하는 경우 많으시죠? 그렇다면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어떠신가요? 차에 대해 잘 알고 사시는지요? 대리점 영업 사원의 설명을 듣고 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잘 몰라도 일단 사서 잘 타고 다니다가, 혹여 고장이 나면 잘 수리하고 타면 되죠. 그런데 고장도 나지 않는 미술 작품은 왜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어릴 적 미술 수업 시간에 크레파스, 수채화 물감 등 다양한 재료로 작품 창작 활동은 해 봤어도, 미술 작품의 감상법을 배워본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작품 감상'에 대해 막연한 어려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술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눈으로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고 느끼시면 됩니다. 답이 너무 시시한가요? '시각 예술'이라 불리는 이



유는 눈으로 바라보는 미술 작품이기 때문이지요. 그림, 조각, 사운드 아트 등 대부분의 예술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표현이 됩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과 소유뿐만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속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 자산 투자 시장이 몇 년 새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암호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 암호 자산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만져본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미술 작품은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가치재입니다. 미술 작품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가격일거예요. 왜 그렇게 비싼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미술 작품은 세상에 단 하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명품 가방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품의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시즌별 명품 제품들은 그 시즌에만 한정 제작되기 때문에 비싸도 구매 수요가 높습니다. 또 명품들 중에서도 전 세계 소량으로만 제작되는 한정판 제품, 일명 '리미티드 에디션'은 같은 브랜드라 해도 훨씬 더 비쌉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서도 희귀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 - 하나의 작품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술 작품이 비싼 이유가 납득이 가겠죠? 두 번째 이유는, 작품의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한여름, 시원한 생수를 마트에서 살 때와 지리산 정상에서 살 때의 가격 차이를 떠올려보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가치는 차원이 다르게 상승합니다. 익히 잘 알려진 피카소, 마네, 모네의 작품 가격이 천억 원을 넘겼다는 뉴스를 간혹 접해보셨을 텐

데요. 캔버스 천에 물감으로 그린, 특별히 비싼 재료도 아닌 작품들이 유독 고가인 것은 바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이지요. 유명하면 비싸진다! 맞습니다. 물론 작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상상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이니까요. 세 번째로, 미술 시장에서 인정받는 작가의 작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점차 상승합니다. 물론 모든 작품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작가의 전시 경력이 쌓이면서 작품 거래와 유명세가 증가하면, 그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가격은 상승하죠. 반면, 시간이 지나도 인기가 줄어드는 작품은 가격이 하락하거나 거래가 잘되지 않기도 합니다. 미술 작품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는 문화적인 만족감과 이를 소장했다는 소유욕의 충족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지요.

작품을 알려주는 키워드, 캡션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과 나이, 키, 사는 지역 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캡션(caption)이라고 지칭합니다. 작가명name, 작가의 국적과 출생년도nationality and year of birth, 작품 제목title, 재료medium, 제작 연도year of creation, 크기size, 에디션edition (동일한 작품을 복제하는 판화, 사진, 조각 등의 경우 작

품 수를 제한해서 제작함), 소장처collection 및 가격 price 등을 표시합니다. 작품 캡션은 미술관, 갤러리(화랑), 아트페어에 전시된 작품의 경우에는 주로 오른쪽 아래 벽면 또는 근처에 게재되어 있는데, 주의를 기울여 찾아보면 캡션이 해당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소개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만일 캡션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작품 이미지를 하나의 종이에 캡션과 함께 표시한 가격 리스트price list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작가 노트artist statement가 있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일종의 설명글인데요, 작가의 의도나 생각을 이해하고 싶을 때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다양하데, 캡션과 작가 노트를 먼저 살펴보고 작품을 감상하거나, 아니면 작품을 먼저 보고 느끼면서 구상 의도 등을 추측해본 뒤 캡션이나 작가 노트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선감상, 후비교'의 과정을 통해 내 생각과 작가의 생각을 비교해보고, 다르다면 '아! 작가는 이런 의도로 표현했구나' 하고 느끼며 같은 이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주로 후자의 감상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글 김중현 아트디렉터, Artdotz 대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뉴욕 킵스Kips Gallery 부디렉터, 퀸스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ARPNY의 디렉터2013-2015를 거쳐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일했다. 귀국 후 아트부산 2016 아트디렉터 등 다양한 미술 행사 진행은 물론 미술 시장에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상명대학교에 출강하며 해외 공모전 및 전시 전문 플랫폼 Artdotz를 운영하고 있다.

조의(弔衣)

반려 재킷을 떠나보내며

디자인은 탄생(생산)과 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탄생의 순간에만 디자인이 필요할까? 디자인된 그 무엇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시작하지만 사용자의 참여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1

20년도 훨씬 넘게 입은 옷! 마침내 버렸다. 신촌에 있는 어느 대학의 공터에서 E사의 재고 정리 세일이 있었는데, 재킷 두 벌을 각각 2만 원씩에 샀던 것이다. 스타일이나 색깔이 마음에 들어 자주 입으면서 어느새 십여 년이 흘렀고 팔꿈치 부분이 닳아 급기야 조그맣게 구멍까지 생겼다. 옷이 낡아가는 동안 내 몸도 함께 나이 들어갔을 것이다. 대뜸 버리기는 섭섭하여 수선 집에 갔다. 반려견이 아파도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않는가. 구멍 난 팔꿈치 부분에 가죽이나 두꺼운 천으로 동그렇게 덧대달라고 부탁했다.

살던 동네의 골목길에 있는 슈퍼마켓 이름이 '노른자 슈퍼'였는데, 수선 집은 이 슈퍼마켓 건너편에 있었다. 이름하여 '흰자 수선'. 알짜만 취급하는 '노른자 슈퍼'에 견주어 껌데기를 다룬다는 뜻일까? 결코 풀리지 않는 당당한 상호다. 나는 이렇게 덧대 붙이는 쪼가리를 호떡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떡 한 개 값이 만 원, 두 벌이니 총 4만 원이 들었다. 재킷 값이나 팔꿈치의 호떡 값이나 마찬가지다. 호떡을 붙인 채로 또 몇 년을 입었다. 이번에는 소

매 끝 부분까지 닳아 나슬나슬해졌다. 손으로 힘껏 당기면 찢어질 듯 간신히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속살 정도가 아니라 뼈가 드러날 지경이다. 또 수선 집에 갔다. 소매에도 빙 둘러가면서 가죽으로 덧대달라고 할 참이었다. 그런데 수선 집 주인장의 표정, '그냥 새로 사세요...'

일본 영화 <미나미 양장점의 비밀>의 원래 제목은 <수선하는 사람縫い裁つ人>이다.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를 이끈 고베의 어느 고즈넉한 언덕 끝자락에 있는 미나미 양장점南洋裁店. 평범한 단독 주택이 양장점의 겉모습이다. 양재사이자 디자이너인 이치에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녀는 섬세하고 감각적이지만 역시 디자이너였던 할머니에 대한 애정과 존경으로 할머니 시대의 느낌을 살려 옷을 짓는다. 새로운 옷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옷을 수선하거나 리폼해주는 것이다. 제목에서처럼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수선사라는 표현이 맞을 거다.

영화는 차분한 빈티지 분위기로 엇비슷한 시퀀스가 반복된다. 평범한 일상을 은유하는 듯 장면의



2

1 일명 호떡을 덧대어 수선한 재킷
2 영화 <미나미 양장점의 비밀> 속 한 장면

흐름도 느릿하다. 얼핏 권태롭고 밋밋해 보이지만 일상에 현미경을 들이댄 듯 에피소드 하나하나의 결이 살아 있다. 은사였던 이가 수의를 만들어달라며 내민 옷을 정원 가을 때 입는 작업복으로 리폼 해주거나, 고인이 된 마을 어른의 양복을 파티 장소에 걸어놓고 연회를 즐겼던 고인을 추모하는 등 각각의 이야기는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옷이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린 패스트 패션에 시위하듯, 삶의 굴곡과 흔적이 담겨 있는 옷과 이를 수선하고 되살리는 디자이너를 극의 중심에 세웠다.

이치에가 만든 옷에 매료된 백화점 직원이 이곳의 옷을 브랜드화 하자고 찾아온다. 그러나 백화점 직원은 끝내 그녀를 설득하지 못한다. 그녀는 한곳의 가게에서만 옷을 전시하고 판매할 뿐 할머니와 자신이 만든 옷을 백화점에 납품할 생각이 없다. 주인공의 관점에서 옷은 곧 '사람'과 그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영화에서 대개의 손님들은 가죽이 입었던 옷을 가져와 수선해서 입는다. 가죽의 온기와 영혼, 그들과의 기억을 입으려는 것이다. 주인공 이치에 역시

할머니가 디자인하고 만들었던 손님들의 옷을 수선하면서 할머니의 온기와 영혼을 느낀다. 그녀는 할머니의 패턴과 바느질을 풀고 다시 꿰매는 것이 곧 자신의 디자인이었음을 깨닫는다. 할머니의 디자인은 사라지지 않고 손녀의 디자인으로 이어진다. 옷은 디자이너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옷이 살아가는 동안 입는 사람의 추억과 정서를 담아가다.

"그렇게 많이 보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 수 없게 돼요."

"애정을 갖고 지켜온 것들이 사라지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물건이 주인과 일생을 같이하다가 함께 끝나는 것도 좋다 싶어요."

그녀의 말을 듣다 보면 그녀가 단지 옷을 만들고 수선하는 사람일 뿐인가 싶다. 영화감독의 메시지가 완성되는 지점이다.

조선 순조 때 유휴 씨 부인은 27년간 사용해왔던 바늘이 부러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조침문弔針文을 남겼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 자 글로써 바늘[針者]에게 고하노니, 인간부녀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인데, 세상 사람들이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하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情懷가 남과 다르리라. 오호 통재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지금까지 이십칠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달아버린 소매를 수선할 길이 없던 재킷은 장롱 안에서 몇 년을 더 보내다가 결국 임종을 맞았다. 정들었던 반려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은 없을까? 긴 세월 내 어깨를 감싸주었던 재킷을 떠나보내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글 박현택 연필뮤지엄 관장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했다. 산책으로 '오래된 디자인', '보이지 않는 디자인' 등이 있다.

삶은 여행, 과정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트립 투 이탈리아>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트립 Trip’ 시리즈는 제목처럼 두 배우 스티브 쿠건과 롭 브라이언의 여행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다.

어찌 보면 중년 아재들의 너스레가 영화의 전부다. 도덕률을 위반하는 데 유머의 재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장애와 동성에 비하처럼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나는 농담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데도 2010년 <트립 투 잉글랜드>에서 출발한 이들의 여행기는 <트립 투 이탈리아>2014와

<트립 투 스페인>2017, <트립 투 그리스>2020까지 유럽 전역으로 이어졌다.

강산이 한 번 바뀔 때까지 영국 중년 남성들의 여행이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영화는 두 배우가 영국 일요판 신문인 <옵서버>의 의뢰를 받고 레스토랑 순례에 나서는 식도락 여행의 형식을 취한다. 주방에서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들과 테이블에서 그 결과물을 음미하는 두 배우의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기에 자연 풍경과 문학, 역사를 양념처럼 곁들인다. <트립 투 잉글랜드>에서는 위즈워스와 콜리지, <트립 투 이탈리아>에선 바이런과 셸리의 영시英詩를 인용한다. <트립 투 스페인>에서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트립 투 그리스>에서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언급하는 식이다. 자연 풍경과 레스토랑이 달라질 뿐 매번 형식은 같다. 어떤 의미에선 짓궂은 유머가 넘치는 관광 홍보 영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연출을 맡은 마이클 윈터바텀은 <인 디스 월드 In This World>로 2003년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영국 감독이다. 언제나 그의 작품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 서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리즈에서도 <꽃보다 할배>나 <꽃보다 누나>처럼 예

능과 다큐, 연출과 사실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는 건 마찬가지다. 호텔이나 식당에서 연신 구시렁거리고 티격태격하는 건 배우들 자신일까, 이들이 연기하는 배역일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리즈는 1965년생 동갑내기 두 배우의 입심에 철저히 기대는 경우다. 실제로 성대모사와 희극 연기로 잔뼈가 굵은 이들은 이전부터 즐겨 호흡을 맞췄던 단짝이다. 영화에서도 브라이언은 앤서니 홉킨스와 알 파치노 같은 배우들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 쿠건은 시계를 보는 것처럼 탄침을 피우거나 면박하느라 여념이 없다. 끝없이 이어지는 언어유희부터 입씨름까지 말의 홍수에 가까운 이 시리즈는 우디 앨런 영화의 영국판처럼 보이기도 한다.

앨런의 영화와 마찬가지로 일탈을 꿈꾸는 두 중년 남성의 욕망 역시 이 시리즈를 보는 재미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배우자와 연인이 부재한 남성들만의 여행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전원 풍경, 향긋한 와인, 예쁜 여성들, 맛있는 음식”이라는 <트립

투 이탈리아>의 대사처럼 중년 남성들의 로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영화의 묘한 매력이다. 이 때문에 온전하게 영화를 즐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이해와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브라이언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보이는 반면, 쿠건을 자유분방한 역으로 설정한 점도 이채롭다.

하지만 단지 이것만이 전부일까, 시리즈가 거듭될 수록 철부지 중년들도 서서히 늙어간다. 더불어 관객들은 삶의 문제와 힘겹게 씨름하는 이들의 또 다른 얼굴을 엿보게 된다. 화려한 작품과 배역을 갈망하다가 잠에서 깨어나고, 대중에게 잊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들의 유머 코드가 올바르지는 않지만 그리 밍지 않은 건 그 창끝이 자신들에게도 향하기 때문일 것이다. 시리즈 두 번째 편에 들어가면서 ‘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는 주제로 한참이나 자기 비판적인 대화를 나누는 도입부 장면이 그렇다. 이들은 여행에 대해 “중착지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야”라고 말한다. 어쩌면 삶에도 같은 비유는 성



트립 투 이탈리아 The Trip to Italy
감독 마이클 윈터바텀
출연 롭 브라이언, 스티브 쿠건

립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여행지인 이탈리아 편에서 흐르는 음악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1864~1949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곡인 ‘저녁 노을에 Im Abendrot’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포성이 멈춘 직후인 1948년, 말년에 지은 가곡으로 작곡가는 생전에 이 가곡이 연주되는 걸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 가곡은 작곡가 사후인 1950년 빌헬름 푸르트벵글러의 지휘와 소프라노 키르스텐 플라그스타트의 노래로 영국 런던에서 초연됐다. 슈트라우스는 후기 낭만주의 최후의 거장으로 꼽히지만 이미 현대음악은 무조와 12음 기법의 난해한 어법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슈트라우스는 시대적 흐름에 개의치 않는 것처럼 여전히 후기 낭만주의의 도도한 걱정을 잃지 않는다. 어찌 보면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결작일 것이다.

영화 속 지중해 요트 장면에서 처음 나온 이 곡은 주제가처럼 두 남성의 이탈리아 여행길을 뒤쫓는다. 영화 초반에는 오케스트라 서주만 간간이 모

습을 내비치지만 결말 장면에 이르면 소프라노의 음성도 온전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비상하는 두 종달새를 묘사하던 가곡의 노랫말은 “이것이 어쩌면 죽음일까? Ist dies etwa der Tod?”라는 질문으로 끝난다. 육신이 영혼을 떠나는 순간을 예감하듯이 이 대목에서 작곡가는 청년 시절의 교향시인 <죽음과 변용>의 주제를 살포시 드러낸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지중해 위로 붉은 노을이 서서히 진다. 이 곡은 마지막 편인 <트립 투 그리스>에서도 지중해의 바다 위에서 다시 울려 퍼진다. 흡사 기나긴 여정의 끝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함께 저물어간다는 걸 보여주듯이.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모차르트』 『바이블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한반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도시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다

장소성과 역사를 아우르는 재생건축의 힘

미국 뉴욕은 세계 그 어떤 도시보다도 현대적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계속 새로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빛바랜 영광에 끊임없이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New York



© shutterstock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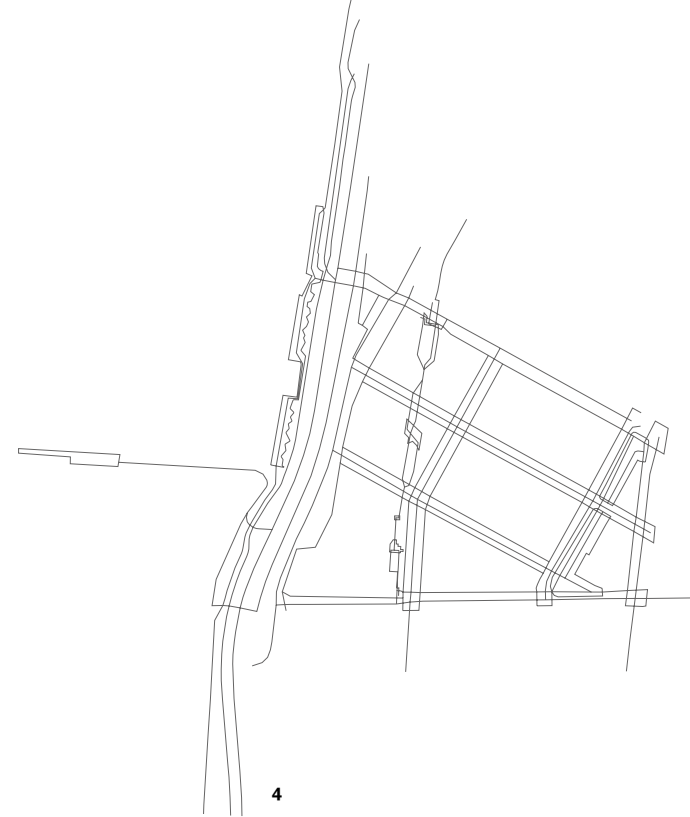


2

- 1,2 여행자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맨해튼 다운타운의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 3 1868년에 문을 연 홈스테드 스테이크하우스 미트패킹 지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스테이크집이다
- 4 미국 뉴욕 맨해튼 자치구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의 거리 지도



3



4

빠른 속도로 일찌감치 성장한 뉴욕에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단연 '재생'이다. 본래 갖고 있는 구조를 살리면서 그 장소성과 역사를 재해석하고 지금 이 도시에 적합한, 그리고 필요한 새 역할을 부여한다.

우리가 뉴욕이란 도시에 매료되는 이유는 지루할 틈도 없이 낮은 자극을 주면서도 그것이 익숙한 배경 속에 있어서가 아닐까. 짧지만 다이내믹한 도시의 역사는 역지로 꾸미거나 포장한 것이 아닌, 마치 흙의 성분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피어나는 산수국 같은 매력으로 재탄생한다. 여기서는 도시의 기반이 되는 수많은 건물과 시설물들이 바로 그 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일 테다.

그런 도시는 다양하고 또 개성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다. 반대로, 낡으면 지우고 오래되면 갈아엎는 환경 속에서는 그 무엇도 뿌리내리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뉴욕은 비록 역사가 길진 않지만 그 어떤 곳보다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로움 속 광란의 파티가 연일 이어지는 1920년대 향락의 도시 뉴욕이 펼쳐지고, <나홀로 집에 2>에서는 모두가 선망하는 도시이자 1980년대에는 최악의 범죄 도시로도 이름을 날렸던 뉴욕의 일면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이기적인 인간 군상이 등장하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는 개츠비의 시대와는 또 다른 화려함을 발견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화로는 <인턴>이 있다. 구시대의 유물이라 할 수밖에 없는 전화번호 부를 생산하던 공장이, 가장 핫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로 변신해 자유롭고 제멋대로인 요즘 세대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재미있는 것은 1920년대 뉴욕의 풍경도, 1990년대 초반의 풍경도 지금 보기에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조금씩 덧대어지고 용도가 바뀌었을지언정 우리가 머릿속에 익히 떠올리는 '뉴욕'의 경관은 어느 시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개츠비와 일행들이 차를 타고 달렸던 이스트강의 다리, 케빈이 강도를 피해 도망치던 센트럴파크,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함께 출근하던 붉은 벽돌의 마지막한

건물들까지. 실제로 맨해튼 한복판에서는 1920년대에 지어진 호텔들이 여전히 상업 중인데, 비싼 숙박비에 비해 너무나 클래식한 내부 시설은 최신식과 최첨단에 익숙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당혹감을 선사하기도 한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00층 이상의 높이로 건축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도 1931년에 완공된 것이고 NBC 스튜디오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유명한 록펠러 센터 또한 1939년에 세워진 건물이니, 우리나라 개념으로 따지면 맨해튼은 '근대역사문화지구'나 다름없는 셈이다.

예술가들과 함께한 맨해튼 서쪽의 변화

빠른 속도로 일찌감치 성장한 뉴욕에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단연 '재생'이다. 시대가 바뀌며 버려진 건물이나 도시 기반 시설들을 새롭게 재탄생시킨 현장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재생건축물들은 단지 오래된 건물을 말끔하게 수리해서 재활용한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본래 갖고 있는 구조를 살리면서 그 장소성과 역사를 재해석하고 지금 이 도시에 적합한, 그리고 필요한 새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재생공간들은 늘 화제의 중심에 있기 마련이며, 뉴욕처럼 주민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 도시에서는 단연 핫플레이스로 부상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 맨해튼의 서쪽 지역인 첼시이다. 첼시는 뉴욕의 심장부 맨해튼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유행을 선도한다는 동네다. 그런데 이곳의 한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 어딘지 조금 섬뜩하다.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Meatpacking District', 직역하면 도살장 구역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사실 첼시는 한 세기 전만 해도 도축장과 정육 공장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다. 1930년대에는 첼시에서 생산되는 고기 제품이 미국에서 3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할 정도였다. 부티크와 트렌디한 카페, 음식점들로



1



2



3

1 첼시마켓은 본래의 구조물을 살리고 그 위에 새로운 역할을 덧입히는 방향을 택했다
2,3 첼시마켓 푸드홀 전경

첼시마켓 재생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었다... 성공의 열쇠는 공간의 '재개발'이 아닌 '재해석'에 있었던 것이다

첼시의 도시 풍경이 바뀐 지금도 다섯 곳의 공장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첼시를 독창적인 예술과 디자인, 개성 넘치는 패션과 문화, 여러 번 방문해도 좋을 식도락의 향연장이라 묘사한다. '미트패킹 디스트릭트'란 이름조차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그것은 더 이상 도살장 구역으로 읽히지 않는다. 맨해튼에서 가장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산하고 있는 첼시의 대명사이자, 번잡한 해석이 불필요한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일 뿐이다. 과거에 이 대를 가득 메웠던 도축장들의 역사와 풍경을 180도 바꾼 것 또한 '재생'의 힘이었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 도축업도 시대적 변화를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의 내리막 길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애당초 맨해튼 같은 도심 한복판에 엄청난 양의 고기를 도살해내는 공장 지대가 있었다는 것이 의아하기도 할 것이다. 1900년대 초반 해도 냉장·냉동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심까지 가축들을 산 채로 운송한 뒤, 주문이 들어왔을 때 도축을 해야 했던 것이 이유였다. 그 말인즉슨 냉장·냉동 기술이 개발되면 미트패킹 디스트릭트는 굳이 맨해튼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1960년대부터 정육 공장들은 급속히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는 온갖 범죄 집단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뉴욕의 위험

지역으로 낙인찍히게 된 미트패킹 디스트릭트를 재생시킨 것은 다름 아닌 예술가들이었다. 맨해튼 중심에 있으면서도 임대료가 저렴했던 덕분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아티스트들이 첼시로 모여들었다.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건물을 번듯하게 새 단장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을 테지만, 그들의 눈에는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의 옛 공장들이 허물거나 더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공장이 트렌디한 카페나 음식점, 혹은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까지 담아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사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뉴욕의 가난한 예술가들이 옛 정육 공장에 작업

실을 차리기 시작했던 1990년대만 해도 일반 사람들에게 '공장'이란 위험한 기계와 힘든 노동의 장소였을 뿐, 어떤 문화예술적인 매력을 느낄 만한 데는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도 누군가는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서 전에 보지 못한 가능성을 발견했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티스트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작업을 펼쳤다. 비록 이 지역을 재생시키겠다는 목적에서 일어난 변화는 아니었지만,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공간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발산시켜 스스로 재생의 힘을 찾아내게 한 원동력이 됐다. 그 영향으로 첼시의 거리는 작품 갤러리와 디자이너 숍들로 다시 채워졌으며, 지금은 동시대 뉴욕의

예술과 패션 트렌드를 가장 앞서서 경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1997년 첼시마켓이 오픈한 뒤부터는 좀 더 대중적인 흡인력을 가지는 상업성까지 갖추게 됐는데, 이곳 또한 그 역사가 흥미롭다. **도시의 재해석, 첼시마켓** 첼시마켓은 1890년대에 세워진 한 비스킷 공장 건물로 지역의 식자재와 식품품, 각종 인테리어 소품과 패션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쇼핑센터다. 오직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가게들도 많아 뉴욕 여행 중 꼭 방문해야 하는 명소로 유명해졌다. 첼시마켓의 전신이 되는 공장은 나비스코Nabisco

라는 회사로, 우리도 잘 아는 오레오와 리츠 크래커를 만든 바로 그 브랜드다. 익숙한 이름의 과자를 만들던 공장이라 그런지 이곳을 방문하면 괜히 더 친숙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마치 예전부터 시장으로 이용됐던 공간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옛 공장의 구조와 벽면들은 지금의 용도에 조화롭게 스며들어 있었다. 첼시마켓은 쇼핑몰이라 하기에, 복합 문화공간이라 하기에 딱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인상이다. 아마 이 장소가 상징하는 첼시 지역의 역사와 산업적 맥락이 그런 현대적인 단어의 조합으로는 충분히 담아낼 수 없어서가 아닐까 한다. 이곳은 '마켓'이라는 명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사실 첼시마켓은 비스킷 공장 시절 이전부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도심 먹거리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 근처 허드슨강 주변은 본래 인디언들이 장사를 하던 자리였고, 다시 시간이 흘러 도매 정육업자들의 차지가 되기도 했다. 달콤한 과자를 생산하며 도심 산업의 중심에 있었던 나비스코 공장이 1958년 교외로 이전한 후에는 한동안 방치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곧 이 장소의 가능성을 알아본 사업가에 의해 첼시마켓으로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 개발업체를 거쳐 구글이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첼시마켓 한 곳에 미국 도시의 근현대사가 온전히 녹아 있는 셈이다. 첼시마켓의 로고는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의 역사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개별 상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을 갖추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 외에는 공장의 원래 형태와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첼시마켓 재생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었다. 심지어 그 시절 사용하던 엘리베이터

도 번듯이 운행 중이며 천장 구조물, 파이프 하나까지 허투루 없애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점들이 이 장소를 유일무이한 곳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공의 열쇠는 공간의 '재개발'이 아닌 '재해석'에 있었던 것이다. 2010년 하이라인 파크의 개장은 첼시 지역의 버라이어티한 역사에 또 한 겹의 색채를 더한 사건이었다. 하이라인은 1920년대에 건설된 고가 형태의 화물 철도로 60년대 육로 수송이 발달하면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된 사례다. 미트패킹 디스트릭트가 예술가들에 의해서, 첼시마켓이 사업가에 의해서 재발견됐다면 하이라인을 철거될 운명에서 구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었다. 사람들은 '하이라인 친구들 Friends of High Line'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하이라인 재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더 크게 불러일으켰고, 끝내 공원화 결정을 이끌어내고야 말았다. 하이라인은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서 시작돼 첼시마켓과도 이어지며, 2015년에는 휘트니 뮤지엄이 하이라인의 남쪽 끝으로 이전해 오기도 했다. 화

- 1 맨해튼 11번가 갠스부르 스트리트에서 34번가까지 이어진 하이라인파크
- 2 9미터 높이의 고가에서 조망하는 뉴욕의 일몰



물 열차가 달리던 철로는 이제 시민들의 쉼터이자 보행로가 되어 주변 도시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되고 있다. 사람들은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쉴 수 있게 만들어진 벤치에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앉아 책을 보기도 하고 낮잠을 청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도시는 극장 무대 위에 오른 영화이자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이다. 그리고 그 주제는 다른 아닌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결코 과거와 단절되지 않는 첼시의 장소성과 역사였다.

포용의 도시

우리는 왜 뉴욕을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왜 수많은

영화가 뉴욕을 배경으로 하며,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영화 속 이야기에서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뉴욕이란 도시가 단지 유명해서만이 아닐 것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운 많은 이야기들을 포용할 수 있는 뉴욕은 개방성 위에 세워진 도시다. 현대 도시인의 복잡 미묘한 삶을 거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재생을 통해 산업의 현장에서 도시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난 첼시가 LGBTQ+, 즉 성소수자 커뮤니티 수용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와중에 낙오되거나 타락하는 모습도, 절망을 딛고 일어나 새 출발을 하려 발버둥치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의 일부다. 깔끔하고 번듯한 신도시보다 손때 묻은 좁은 골목, 거친 벽돌 건물에서 편안함과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과 닮았기 때문은 아닐까. 전성기를 다해 일견 흉물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다시 한 번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것, 재생은 결국 포용과 동의어일지 모른다.

글 김지나 작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기연구원, 아트센터나비 등 다양한 곳에서 문화 전반을 다뤘다. 이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지역문화가 활용되는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조경학 석사와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문화로 도시 읽기』가 있다.

세계악기전시관

WORLD MUSICAL INSTRUMENT MUSEUM

음악으로 바라보는 세계의 창
Journey to the World with Music



세계악기전시관은 지구촌 전 대륙의 다양한 전통 악기를 관람하고, 체험하면서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세계악기전시관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상시 관람

위 치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2층
이용방법 사전예약 후 관람 가능 (개인/단체)
문 의 031)783-8153

단체 관람

운영시간 화 ~ 금 10:30, 14:00 (1일 2회)
프로그램 전시해설 및 활동지, 전통악기체험 (약 40분 소요)
대상인원 회당 최대 30명 (사전예약 / *당일예약 불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람시간** 및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문의**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EONGNAM •

BEYOND



- 56 문화공간
모두의 꿈이 꽃피는 '예술의 정원'
성남아트리움
- 60 예술가의 작업실
진실하고 온전한 추상
피정원 작가
- 66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 69 캘린더

모두의 꿈이 꽃피는 '예술의 정원'

성남아트리움

2022년 3월 3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옛 성남시민회관 자리에 문화예술의 새로운 랜드마크 성남아트리움이 문을 연다.

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로 대극장과 소극장을 갖춘 이곳은 현재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공간'이라는 의미처럼, 본도심을 넘어 성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의 역할이 기대된다.



성남아트리움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성남시의료원 옆)

1



1 성남아트리움 조감도
2 철거 전 옛 성남시민회관 전경

2

성남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이라면 성남시민회관에 대한 추억 하나쯤 갖고 있을 법하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옛 성남시청 자리에 위치했던 성남시민회관은 1981년 6월 준공 이후 오랫동안 지역의 문화 요람으로 자리해온 당대의 '핫플'이었다. 2005년 성남아트센터 건립 이전까지, 성남시의 유일한 문화 공간이자 시민들의 예술 사랑방이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짐작이 간다. '시민회관'이라는 정감 있는 이름처럼, 대중가수의 공연부터 국악과 클래식 무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발표와 교류의 장, 때로는 전시회와 추억의 고전영화 상영까지, 성남시민회관은 크고 작은 문화 행사와 무대를 소화하는 전천후 극장으로 시민과 함께해왔다.

이후 성남문화재단이 2005년부터 이곳을 위탁 운영하면서 성남시민회관의 역할은 좀 더 다채로워진다. 어린이 공연과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가족 뮤지컬 등 보다 폭넓은 장르의 기획공연과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성남시민회관은 성남아트센터와 더불어 성남시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든든한 한 축이자 역사적 상징으로 자리해왔다.

그러던 2015년 5월, 성남시민회관은 잠시의 휴식기를 선언했다. 34년의 세월이 더해진 노후화와 안전 문제 등으로 철거와 신축이 결정된 것이다. 해당 부지에 '성남시 문화·의료 시설' 건립을 목표로 지난 2019년 3월 기공식을 가진 이후 2020년 성남시의료원이 먼저 성공리에 개원했고, 성남시민회관 역시 '성남아트리움'이라는 새 이름으로 관객을 만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성남 문화예술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트리움 atrium'은 고대 로마 시대 건축에서 주택의 중앙 정원을 뜻한다. 햇살

이 내리쬐는 아름다운 실내 정원, 누구나 자연스레 모여들어 즐거운 심을 만끽하는 풍경이 절로 연상되는 단어다. 여기에 '성남'이라는 지역명을 더한 명칭 '성남아트리움'은 지난해 시민 명칭 공모와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공간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성남아트리움은 현재 3월 3일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건축면적 4,943m², 전체 면적 2만3,949m², 지하 4층/지상 2층 규모로 645석 규모의 대극장과 200여 석의 소극장을 갖췄다. 여기에 성남예총과 성남민예총, 성남여성합창단 등 지역 예술단체 사무실들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함께 자리하며 시민예술의 산실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대극장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수준 있는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 주파수 대역의 지향성 제어가 가능한 스피커를 도입, 무대로 유입되는 소리를 최소화해 쾌적한 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음향 시스템을 갖췄다. 무대 기계 시스템은 독립 제어 방식인 Axis 컨트롤러 시스템을 적용해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완벽한 정밀 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무대, 품격의 예술

새로운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도 차례로 관객을 기다린다. 성남문화재단은 상반기에는 개관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 및 국내 연주자 리사이틀 기획 공연을 진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콘서트 오페라,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함께 지역 예술단체(인)들을 위한 공연장 대관을 시작한다. 지난 2015년 시민회관 철거 후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가 줄어든 본도심 주민들, 활동 공간의 부재가 아쉬웠던 지역 예술단체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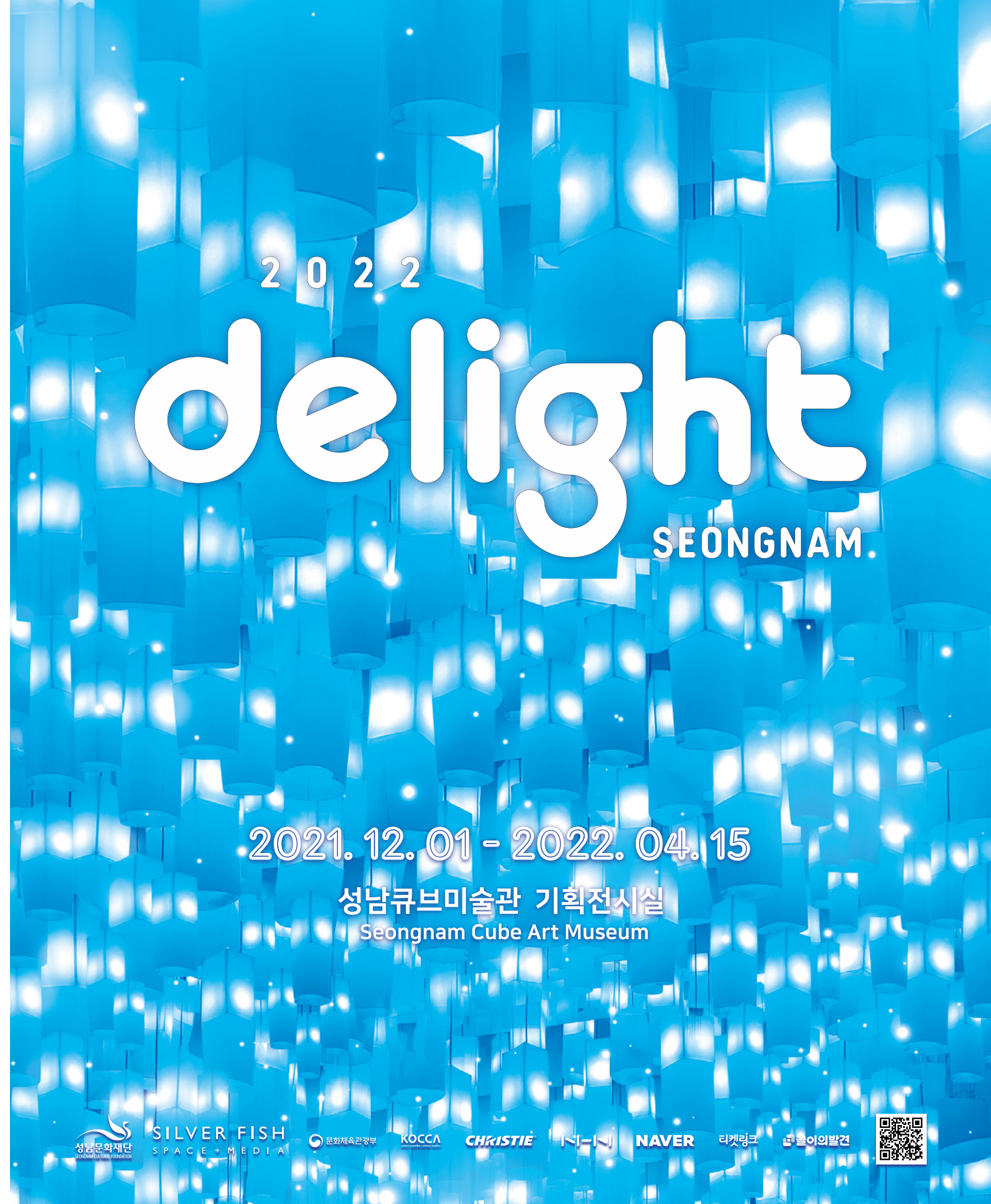


3월4일, 개관 첫 공연의 협연자로 나서는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성남아트리움 개관 기념 음악회는 성남시를 대표하는 성남시립예술단이 뜻 깊은 오프닝을 장식한다. 3월 4일(금)부터 4월 16일(토)까지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총 4회 펼쳐지는 릴레이 공연의 첫 순서는 3월 4일(금) 금난새가 지휘하는 성남시립교향악단의 무대.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Ilya Rashkovskiy가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한다. 러시아 출신의 라쉬코프스키는 2012년 하마마츠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롱티보와 루빈슈타인,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탄탄한 커리어를 바탕으로, 현재 성신여대 음대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무대를 누비고 있다. 독주와 듀오, 협연까지 해내는 멀티플레이어로 동료 연주자와 관객 모두에게서 호평받고 있는 라쉬코프스키의 피아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3월 17일(목)에는 성남시립국악단(지휘 진성수), 3월 29일(화)에는 성남시립합창단(지휘 손동현), 4월 16일(토)에는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박위수)이 성남아트리움의 개관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클래식 애호가들이라면 성남아트리움의 명품 클래식 시리즈 라인업을 기대해도 좋다. 우선 3월 19일에는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는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리사이틀이 기다린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959와 D960으로 꾸며진 프로그램에서 엿볼 수 있듯, 작곡가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노래'와 한층 무르익은 연주자의 해석이 기대되는 무대다. 이후 손열음 & 조성현 듀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등 국내 대표 아티스트들이 성남아트리움과 함께할 시기를 조율 중이다. 그 옛날 성남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졌던 34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이 되어줄 성남아트리움, 새로운 문화를 꽃피워갈 아름다운 예술 정원의 미래를 기대한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2021. 12. 01 - 2022. 04. 15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Seongnam Cube Art Museum



SILVER FISH
SPACE + MEDIA



KOCCA

CHRISTIE



NAVER

리켓링크

플레이의발전



PHEE JUNGWON

진실하고 온전한 추상

피정원 작가

피정원 작가는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추상 회화를 그린다. 캔버스에 재료의 덧칠을 반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커켜이 쌓는다.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2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2022 성남청년작가전 1 <감정의 레이어: Emotional Layers>에 앞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그의 작업실을 찾았다.

이번 전시는 성남문화재단이 성남 지역의 청년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성남청년작가전의 일환입니다. 작가님께 성남은 어떤 장소인가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았던 곳도, 부모님이 살아오신 곳도, 아버지께서 마지막 까지 일하신 곳도 모두 성남입니다. 수많은 기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분당 중앙공원은 아버지와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어렸을 적 성남아트센터에서 아버지와 나는 대화도 떠오릅니다. "나중에 정원이기 훌륭한 예술가가 되면 여기서 전시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하는 지금, 그 어떤 순간보다도 기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다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유학을 떠나 더 넓은 세상에서 미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외곽의 바다에 접한 작은 마을에서는 '나는 누구일까? 어떤 미술가가 될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등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갤러리에 가면 최고의 예술가를 몸소 만날 수 있고 미술관에 가면 교과서나 책에서 본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미국 뉴욕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저변을 넓힐 수 있었고, 내로라하는 교수님들께 수학했습니다. 밴쿠버에서 제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뉴욕에서 그 대답을 찾았다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대답에 상관없이 제가 편히 쉴 수 있고, 본연의 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고 또 성남이지 않을까 합니다.

미술의 범주는 넓고 여러 분야가 존재하는데, 추상 회화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시간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를 다니면서 뉴욕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내던 시기의 뉴욕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추상화가 낯설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 모두 추상 회화 작가인 점에도 어떤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명문 예술 대학교인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파인 아트Fine Arts를 전공하고 수석 졸업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순수하고 치열하게 미술에 매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프랫에서의 배움은 자신에게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나요?

훌륭한 교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리오 네이브스Mario Naves 교수님과 키트 화이트Kit White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두 분이 가르치는





EMOTIONAL LAYERS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평가이기도 한 마리오 교수님은 “무언가를 창작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 공부 없이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많은 양의 과제를 내주시고 예술가로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키트 교수님은 자신의 작업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 역시 그렇게 나아갔다고 하셨습니다. 작업과 대화한다는 것이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점차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에서의 공부가 굉장히 재미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두 분 중 키트 화이트 교수님께서서는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제가 운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서클 Pratt Circle, 학업 최고 성적 등 여러 조건이 붙는데, 무엇보다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학교에서 개인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세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검정이 작가님의 자아를 뜻한다고 들었습니다. 작품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시겠지만 언어로도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를 다니며 방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땀땀을 치다가 감독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당시 대학 입학과 연계된 아이비 비주얼 아트 IB Visual Arts 프로그램이 이수 중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다 브렐린 Bonita Brailean 선생님이 나서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영감을 얻는 차원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라고 한 것인데 왜 잡아왔냐면서 포용해주시는 거죠. 이 일로 브렐린 선생님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참된 스승이라 여기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브렐린 선생님께서 재료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니? 그것을 찾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먹과 블랙젯소를 떠올렸습니다. 두 재료 모두 수성이라 매트한 블랙을 표현할 수 있지만, 동양화에서 먹은 주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서양화에서 블랙젯소는 캔버스의 밑바탕을 깔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재료가 저와 닮았다고 판단했고, 둘을 섞어가며 작업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거나 상상을 할 때 눈을 감으면 그 세상이 명확해집니다. 검정은 눈을 감는 것 같은 시각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몰입하고 깊은 어떤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추상적 세계이기도 합니다.

영감을 얻는 작가님만의 방식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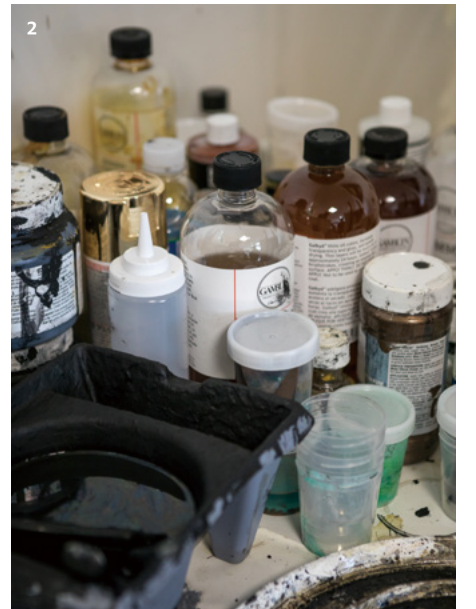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 인터뷰도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멕시코 여행 중에 동굴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에서 라이트를 켜 순간 세상이 환해지는 형상이 강렬했습니다. 동굴 벽화는 인류 최초의 그림으로 여겨지고 있고, 깊은 곳에 자신의 경험을 1차원적으로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비슷한 맥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벽화처럼, 제가 당시 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캔버스에 작업을 했어요. The Black Path 시리즈의 일부인데 <Untitled: After-Image I>은 제가 보관 중이고, <Untitled: After-Image II>는 판매가 되었고, <Untitled: After-Image III>은 플랫폼 인스티튜트에서 장기간 임대 계약을 맺은 작품이지만 양해를 구하고 한국에서 처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 작업 중 가장 마음 깊이 품으셔서 제게도 가장 뜻깊은 작품입니다.

The Black Path 시리즈, Future 시리즈, Line 시리즈 모두 검정이 담겨 있지만 저마다 다릅니다. 작가님의 내면 의식에 따른 차이일까요?

사용한 재료나 작업 방식은 물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도 다릅니다. The Black Path 시리즈는 저의 일기 같은 작품입니다. 제가 어느 공간이나 시간을 기억해 당시 느꼈던 감정을 끌어내는 데 몰두하는 작업입니다. Future 시리즈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떠올릴 때면 커다란 금덩이처럼 강하고 절대 부서지지 않는 존재, 혹은 어둠 속에서는 물론이고 저 멀리서도 빛나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막상 부모님을 만나고 나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모습으로 저를 떠나보내

1 작업실에 있던 Archival Painting 시리즈
2 피정원 작가가 사용하고 실험하는 재료





1

는 것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이 저를 단단하게도, 슬프게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것이 Future 시리즈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품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담은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수액이 떨어지는 모습이 와 닿았습니다. 수액과 물감은 모두 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보니 Line 시리즈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여전히 슬픈 시기를 감내하고 있어서 현재는 Future 시리즈나 Line 시리즈를 잘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계속 그려나가길 바라실 거라고 생각해 집중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키트 교수님이 자신과 대화하며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렇게 작가님이 작업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지막 기억을 회상하면서 당시 어떤 감정이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은 때가 언제였니? 그때 마음이 어땠니?'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진실해야 하는 과정

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작품에 다 드러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진솔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상기하고 작업을 하는 데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제 안에서 채우고 비우는 과정이 길어지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품 대부분이 무제입니다. 제목을 붙이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에도 진솔하게 임하고 싶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만, 사실 작품에 대한 언급을 아끼는 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Line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은 링거나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작가가 직접 의미를 부여하면 추상화를 감상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목 역시 짓지 않습니다. 제게는 명확한 주제가 있지만 정의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추상 회화의 작가는 작품과 소통하고 제3자 역시 작품과 소통한다고 배웠습니다. 제 작품을 감상하시는 분들께서 자신만의 감정이나 기억을 불러일으키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추상적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1 피정원 작가가 작업 중인 작품의 결을 감지한다
2,3 매일 쓰는 작업 노트

작업 노트도 함께 전시합니다. 캐비닛 안에 펼쳐 진열되다 보니 보이지 않는 다른 면의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세 종류의 노트가 있는데, 작업을 하면서 매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기처럼 쓰고, 다른 하나는 르네상스 미술이나 한국 미술 등과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재료에 대한 연구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재료를 섞었을 때 비율, 온도나 습도에 따른 강도 혹은 균열과 번짐의 정도, 마티에르가 얼마나 반질거리는지 등 닥치는 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부딪치지 않으면 늘지 않더라고요.

연구용 작업 노트가 Archival Painting 시리즈 중 일부 작품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연구가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승화한 것일까요?

Archival Painting 시리즈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다룰 줄 아는 재료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료를 연구한 작업 노트의 일부가 작품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Archival Painting 시리즈에는 한 작품을 창작할 때 사용한 재료를 모아둔 작업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두 작품을 하나의 세트처럼 만들어놓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작품의 경우 하나의 세트로 작업하는 편입니다. 작품이 팔려서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3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만9,000명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즐기는 미술가도 있는데, 작가님은 어떠신지요?

미술을 하면서 자신을 홍보하는 데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을 알리는 최소한의 활동은 계속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인에게 제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여러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아트페어나 전시회에서 저를 알아봐주시기도 하는데, 제가 전면에 나서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 길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는 최소한의 활동으로 지속하고, 작업에 최대한 정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로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포부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역사에 길이 남을 예술가라고 하고 싶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스스로에게 솔직한 예술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도록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글 김민주 객원기자
사진 김현민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성남큐브미술관 신소장품전

성남문화재단이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에서 2022년 <2021 성남큐브미술관 신소장품전: 유연한 풍경>을 개최한다. 그동안 현대미술 작품을 꾸준히 수집해 동시대 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성남큐브미술관의 2021년 신규 소장작을 소개하는 자리로, 이문희(무늬), 강유정, 최경아, 정애란, 송수영, 박춘화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기존에 성남큐브미술관 3층에 위치했던 상설전시실 이전 후 첫 전시다. 큐브플라자 1층에 자리했던 (구)아름다운가게 공간에 상업 시설 대신 새롭게 전시 공간을 조성, 시민과 관객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접근성과 관람 동선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월 4일(금)~5월 15일(일)에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성남문화재단, 2022 성남독립영화 제작지원 공모



2016년 제작지원작 <별새> 포스터

성남문화재단이 올해도 참신한 기획력과 작품성이 돋보이는 독립영화 제작지원에 나선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기초문화재단 최초로 2014년부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을 시작, 그동안 우수한 독립영화와 창작자를 발굴·지원하며 독립영화 제작에 기여해왔다.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매해 꾸준히 이어진 제작지원사업은 2016년 지원작 <별새>(감독 김보라), 2018년 지원작 <찬실이는 복도 많지>(감독 김초희) 등 주요 지원작들이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 호평받는 성과를 거두며 국내 독립영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2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은 장단편 독립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2일(화)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 편수는 장편 2편과 단편 8편 내외, 지원 규모는 장편 최대 8천만원, 단편 최대 7백만원까지 총 2억 원에 달한다. 단, 전체 촬영 분량의 30% 이상을 성남에서 촬영해야 한다. 독립영화 제작을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snmedia.or.kr)에서 제작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snmedia@snart.or.kr)과 원본 우편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문의 : 031-724-8353

2018년 제작지원작 <니나 내나> 시사회



감정의 레이어: Emotional Layers

2022성남청년작가전1
피정원

Jungwon PHEE
Solo Exhibition

2022.02.04 fri
- 03.20 sun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Seongnam Cube Art Museum
Bandal Gallery

2022 성남아트센터
성인 아카데미

2022.02.07.MON.
 10:00 ~ 선착순 마감

감상, 인문 아카데미

황지원의 오페라 살롱
 02/15 ~ 06/14 (화) 10:00

김중헌의 미술애호가 및 콜렉터 과정
 03/08 ~ 06/14 (화) 14:00

황장원의 클래식 포레스트
 02/16 ~ 06/22 (수) 10:00

이은화의 그랜드 아트 투어
 02/17 ~ 06/16 (목) 10:00

김상헌의 즐거운 음악 여행
 02/17 ~ 06/16 (목) 14:00

최정주의 아트 앤 뮤직 큐레이션
 <세계의 아름다운 도시 예술산책 - 보고 듣고 걷다>
 02/18 ~ 06/10 (금) 10:00

윤우학의 철학과 미학으로 해석해 가는 서양미술사
 02/18 ~ 06/10 (금) 14:00

온라인 미술 아카데미

한지아의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만들기
 02/15 ~ 05/10 (화) 14:00

남지혜의 오일파스텔로 그려보는 나만의 명화
 02/16 ~ 03/16 (수) 14:00

최정주, 이윤희, 최혜원, 이현애의 미술인문특강
 <아트앤아트>
 02/17 ~ 03/10 (목) 14:00

이주은의 핸드메이드 판화 - 드로잉 실크스크린
 02/18 ~ 03/11 (금) 14:00

- 신청방법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
- 수강기간 : 02/15 ~ 06/22 (4~17회)
- 장 소 : 큐브플라자 미디어홀 / 온라인 줌 ZOOM
- 수 강 료 : 강좌별 상이 (대면강좌 1회차 무료 오픈특강)
- 상세내용 : www.snart.or.kr 아카데미 강좌 안내
- 문 의 :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031)783-8156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클래식 이야기 - 너클리8 (19:30) ㉕ 황지인&우정애 조인트 피아노 리사이틀 (15:00)		
		 <달라이트 성남>				6 ㉖ 2022 김희재 팬 콘서트 (18:00) ㉗ 백석대학원 성악과 동문 연주 (15:00)		
		7	8	9	10 ㉘ 성남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19:30) ㉙ 김낙구&송현종 듀오 클라리넷 리사이틀 (19:30)	11	12	
		13 ㉚ 2022 김희재 팬 콘서트 (17:00)	14	15	16 ㉛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9:30)	17 ㉜ 안희찬 트럼펫 아카데미 제1회 트럼펫 콘체르토 (19:30)	18	19 ㉝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 6 <흔들흔들 댄스파티> (11:00, 14:00, 16:30) ㉞ 콘페로 카메라타 기획연주회 '현과 함께' (19:30) ㉟ 어린이 환경뮤지컬 '지구' (14:00, 16:30, 19:30)
		20 ㊱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 6 <흔들흔들 댄스파티> (11:00, 14:00) ㊲ SA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21	22 ㊳ 고려대학교 관현악단 신춘음악회 (19:30) ㊴ 신명진 피아노 독주회 (19:30)	23	24 ㊵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 (19:30) ㊶ 방지영 피아노 독주회 (17:00)	25 ㊷ 이은결 <The Illusion> (19:30) ㊸ 아티스트 인사이트 1 : 조진주 & 앙상블 아파시오나토 (19:30)	26 ㊹ 이은결 <The Illusion> (14:00, 18:30) ㊺ 뮤젠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27 ㊻ 이은결 <The Illusion> (14:00) ㊼ KUPHIL 정기연주회	28	 조진주 & 앙상블 아파시오나토		㊽ 오페라하우스 ㊾ 콘서트홀 ㊿ 앙상블시어터 ㉑ 미디어홀 ㉒ 성남큐브미술관 ㉓ 반달갤러리 ㉔ 상설전시실 ㉕ 갤러리808 ㉖ 성남문화재단 기획공연·전시·프로그램		

성남큐브미술관 2·3월 전시 일정

전시명	전시기간	장소	비고
2021 신소장품전 <유연한 풍경>	2월 4일~5월 15일	㉕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무료 관람
<2022 달라이트 성남>	~4월 15일	㉘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성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5,000원 / 성남시민은 정가에서 1,000원 할인(신분증 제시)
성남청년작가전 I <피정원 : 감정의 레이어>	2월 4일~3월 20일	㉓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무료 관람

※ 전시 관람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월요일 휴관)



최경아, 6 months and 30 min, 2020, 130x162cm, 캔버스에 아크릴, 유채

최경아 작가

단국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후,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Painting & Drawing 석사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를 졸업했다. 최경아는 설치, 시트지, 벽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잠시 머물렀던 장소나 공간에 대한 이미지들을 재구성·조합하며 자신만의 회화 체계를 구축한다. <당신에게 보내는, A Letter>2021, <남겨진 풍경 The Landscape Left Behind>2020, <산책자 Flâneur>2017 등 개인전을 열었고 성남큐브미술관, 아미미술관,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등에서 수 차례 그룹전에 참여했다. 이 외에 성남청년작가 선정,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시각예술 부문, Manifest International Drawing Annual 7 등에 수상 및 선정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작품은 성남큐브미술관의 소장품입니다.

작품은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에서 열리는 <2021 성남큐브미술관 신소장품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1 성남큐브미술관 신소장품전: 유연한 풍경>

2월 4일(금)~5월 15일(일)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